

할렐루야!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 끝까지 전하며 복음을 증거 하는 귀한 일들을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감동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선교의 비전이 더욱 믿는 주의 자녀들의 심령에 심겨 주셔서, 선교지와 선교사들에게 감당할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늘 복음의 귀한 열매들을 맺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계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디모데후서 4장 2절

월드컵 통해 개종자들 더 큰 자유 얻을 수 있게 기도하자

BBC, '2022 월드컵 유치한 카타르 엄격한 종교법으로 상처받는 인권/종교적 자유 소개'

이번이 속출하는 가운데 시작된 2022 월드컵과 함께 개최국 카타르의 종교와 인권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아랍 국가 중에서 처음으로 월드컵을 유치한 카타르는 기독교 박해 감시단체인 '오픈도어스'가 매년 발표하는 기독교 박해국 목록에서 18위를 기록했다. 카타르에서 이슬람교가 아닌 다른 종교로 개종하는

행위는 배교로 간주되며 공식적으로 사형에 처해질 수 있다. 따라서 BBC는 카타르 현지 시민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카타르의 엄격한 종교법과 관습이 이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들어봤다(What Qatar's religious laws mean for the 2022 World Cup).

BBC는 영국에서 자이납(가명)이라는 여성을 만났다. 자이납은 비록 영국에 있지만 카타르에 남아 있는 가족의 안위가 걱정돼 신원을 밝히지 않길 원했다.

자이납은 카타르 법에 담긴 종교적 보수성이 자신을 극한으로 몰아넣었다면서 극단적 선택을 고려할 정도였다고 설명했다.

자이납은 카타르의 소위 남성 후견인 제도 때문에 여성은 "마치 평생 미성년자로 살아가는 존재와도 같다"고 말했다.

"살면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마다 남성 보호자로부터 명시적인 서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주로 아버지가 보호자가 되는데, 아버지가 안 계신다면 삼촌, 형제, 할아버지 등이 대신 보호자가 됩니다."

"만약 이러한 허가를 받지 못한다면 대학 입학, 유학, 여행, 결혼, 이혼 등이 모든 결정을 내릴 수 없습니다."

자이납의 아버지는 보수적이기에 자이납은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었다고 한다.

자이납은 혹시나 누군가 자신을 알아볼까 두려워 자신의 자세한 이야기가 기사화되길 꺼렸다. 가족들이 곤경에 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비교적 개방적인 사고를 지닌 가족 분위기에서



자란 여성이라면 이 사회 제도가 유해하다는 자신의 주장을 반박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제도 때문에 여성은 가족의 통제 속에 고통받을 수도 있으며, 이러한 엄격한 법은 지역 부족 내 보수주의자들의 입맛에 맞춘 것이라는 게 자이납의 설명이다.

"그들은 여성의 권리를 요구하는 건 서구적인 사고방식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이슬람의 가치, 부족의 문화와 전통에 충돌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한편 카타르 월드컵 당국은 자국에 대한 비판은 잘못된 정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도하에서 만난 학생 모델 또한 이와 비슷한 생각을 들려줬다. "서방 단체들이 카타르에 와서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해서는 안 되는지 말해줄 필요 없다"는 것이다.

"여기는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지시하는 방식이 아닌, 우리가 생각할 때 적절한 방식으로 발전해나갈 기회를 누리야 합니다."

그러나 카타르에 대한 자국민의 비판은 엄격한 검열의 대상이 된다. 우리가 만나본 사람들이 그랬듯,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는 이들은 종종 이에 따른 파장을 두려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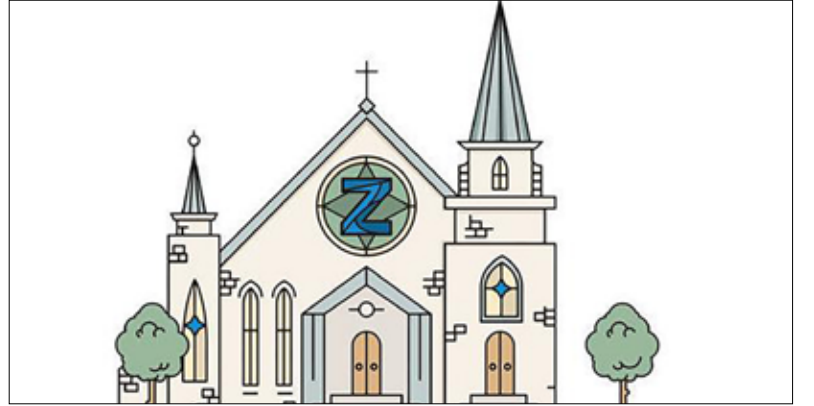
우리가 만나본 사람들은 공공장소에서 술을 마시거나 입

맞춤하는 등의 사소한 문화적 차이에 대해 불평하는 게 아니었다.

이들은 자신들이 기본적인 인권 문제라고 여기는 요소에 대해 말하고 있었다.

한편 오픈도어스는 개최국 카타르에 대해 "허용되는 유일한 교회는 외국인을 위한 교회"라며 "소수의 현지인 기독교인들은 이러한 예배에 참석하거나 자체 교회 건물을 가질 수 없다. 대부분의 개종자들은 기독교 신앙을 숨길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월드컵을 통해 더 큰 자유를 허락해 주시길 기도해 달라"고 요청했다.

(3면으로 계속)



교회가 교회답다면, Z세대 돌아온다!

TGC, Z세대 교인 카일라 하디가 전해주는 "어떻게 Z세대를 교회로 이끌까?"

18세에서 22세 사이 청년 성인의 3분의 2가 적어도 일 년 동안 교회를 떠나고, 그중 많은 이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 Z세대가 이십대가 되어 대학과 직장을 갖게 되면서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는 비율이 급격하게 높아진다. 그중 단 3분의 1만이 정기적으로 교회에 출석한다.

이런 통계는 당황스럽지만 매우 명확하다. 내(카일라 하디는 Gray Road Baptist Church(Indianapolis)교인이며, 청년 세대를 무시하는 사회에 맞서며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하는 젊은이들을 위한 사이트인 The Rebelution에 글을 기고하고 있다)가 속한 세대, 그러니까 Z세대는 지금 교회를 버리고 있다. 오늘날 문화는 자기자족이라는 거짓말로 우리를 유혹한다.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인생을 살 수 있다고 말한다. 하나님과 그의 백성 밖에서도 얼마든지 만족함을 찾을 수 있다는 신화를 심어주고 있다.

Z세대가 점차 교회를 떠나고 무관심이 침입하면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해야만 한다. 지금 교회에 필요한 게 더 매력적인 예배, 업데이트된 건물, 또는 새로운 프로그램일까? 젊은 세대를 끌어들이기 위해서라도 핵심 교리를 타협해야 할까? 더 관대하고 포용적인 교회로 바뀌어야 할까?

아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의 뿌리에는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비성경적인 견해가 자리 잡고 있다. 지금 Z세대에게 필요한 것은 교회와 교회의 존재 목적,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얼마나 절박하게 필요로 하는가에 대한 올바른 이해이다(How to Get Gen Z to Church).

(3면으로 계속)



시론
류영렬 목사



푸른초장
박근재 목사



말씀과 땅
박성현 박사

월드미션대학교
신학/상담학/음악학/예배학/간호학/사회복지학
캠퍼스온라인
www.wmu.edu | 500 Shatto Pl., Los Angeles | (213)388-1000

기독교서적센터
The Christian Book Center
성화, 성구약자, 크리스탈강대상, 성가대·목사까운
(323) 737-7699
인터넷 쇼핑몰: www.lachristianbookcenter.com
E-mail: cbc0191@hotmail.com
1027 S. Western Ave., #2 L.A. CA 90006

베데스다치과 Bethesda Dental
예약문의 646.422.7330 201.431.9753
지의학 박사 이규성 원장
진.료.인.내 - 치아임플란트
- 구강외과/틀니
- 보철치과
- 미용성형치과
- 신경 및 잇몸치료
353 Lexington Ave, Ste 1600-2 New York, NY 10016

www.laguesthouse.com
LA 호텔식 하숙
GUEST HOUSE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김스전기앞)
TEL. 213-663-9181
965 Fedora St. L.A., CA 90006
Email: laguesthouse@live.com

나성순복음교회
LA Full Gospel Church

이영훈 목사 초청
LA 축복성회

2022년 12월 4일(주일) 오후 6시
나성순복음교회 본당

| 강사 | 이영훈 목사
여의도순복음교회 당회장

주 소 |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
전화번호 | (323) 913-4499 / F. (323) 913-4494

홈페이지 | www.lafgc.com
이 메 일 | lafgcusa@yahoo.com

발행인 칼럼

남아 있는 것



김성국 목사 (퀸즈장로교회 담임)

열 다섯 살때 무엇을 하셨는가. 많은 분들이 사춘기 몸살을 앓으며 공부에 짓눌려 버거운 시간이기도 하셨으리라. 그 가운데 대부분 미래에 대한 영롱한 꿈을 꾸셨으리라. 그런데 그 나이에 돈이 없어 중학교에 진학하지 못하고 하루하루 산에서 나무를 하거나 밭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던 청소년이 있었다. 어느 날 눈이 아프더니 완전히 실명하게 되었다. 그는 눈을 잃자 모든 것을 잃은 것으로 여겼다. 눈이 없는데 걷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짝을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그러던 그가 돈이 없어 못 간 중학교를 들어가게 되었다. 시각 장애인을 위한 학교이긴 하지만 실명이란 놀라운 이유 때문에 공부할 기회를 갖게 된 것이다. 사실 그곳에서도 점자로 유서를 쓰려고도 했었다. 그는 1973년 여의도에서 있었던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전도 집회에 참석하게 되었고 마침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 그 후 그는 잃은 시력이 아닌 그에게 남은 것들을 목상하게 되었다. 그의 손에 지팡이가 들려있었으나 그의 앞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신뢰하게 되었다. 그는 10년의 유학 생활을 마치고 교수로서 후학들을 가르치는 가운데 지금은 종신 대를 총장으로 이끄시는 이재서 목사님이시다. 40여 년 전에 밀알 선교단을 세우셨고 현재는 세계 밀알 선교연합 총재로서 섬기시기도 하신다. 그는 예수님을 믿은 후로는 남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았다고 하셨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자신에게 있는 것으로 최선을 다하셨을 뿐이라는 말씀을 직접 듣기도 하였다.

그릿(grit)이란 단어는 끝까지 열정을 가지고 집중하며 결코 포기하지 않은 태도를 일컫는다. 요즈음 그런 그릿의 모습을 눈앞에서 풍성히 보고 있다. 카타르 월드컵이 한창 진행 중이다. 골을 잃으며 탄식하기도 하고 골을 얻으며 환호하기도 한다. 지나간 시간 때문에 땅을 치는 것이 아니라 남아 있는 시간에 최선을 다하는 세계 각국 청년들의 모습에 감동이 된다. 그릿의 청년 선수들과 그들을 바라보고 응원하는 이들이 남은 시간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삶의 현장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삶을 산다면 모두가 월드컵 우승자가 된다.

올해도 벌써 11개월이 지났다. 지금은 지나간 시간을 아쉬워하며 마음 아파할 때가 아니다. 아직 충분히 남아 있는 시간이 있다. 넘어졌다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시간이다. 미끄러졌다면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시간이다. 멈추었다면 다시 흐를 수 있는 시간이다. 실수했다면 다시 고칠 수 있는 시간이다. 죄를 지었다면 다시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다. 이순신 장군은 남아있는 12척의 배를 가지고 기적의 역사를 썼다. 올해 우리 모두에게 남아 있는 시간이 한 달이나 있다. 무엇이든 왜 못하겠는가.

올해도 벌써 11개월이 지났다. 지금은 지나간 시간을 아쉬워하며 마음 아파할 때가 아니다. 아직 충분히 남아 있는 시간이 있다. 넘어졌다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시간이다. 미끄러졌다면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시간이다. 멈추었다면 다시 흐를 수 있는 시간이다. 실수했다면 다시 고칠 수 있는 시간이다. 죄를 지었다면 다시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다. 이순신 장군은 남아있는 12척의 배를 가지고 기적의 역사를 썼다. 올해 우리 모두에게 남아 있는 시간이 한 달이나 있다. 무엇이든 왜 못하겠는가.

글은 사람들을 설득하고 공동체를 이끈다

포브스, 최고의 리더는 글을 쓰는 리더라고 소개

최고의 리더는 목표를 세우기 위해 글을 쓴다. 글쓰기야말로 자신이 지금 서 있는 곳과 나아갈 곳을 정확히 보여주는 최고의 내비게이션이기 때문이다. 공동체 안에서 원하는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리더인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부터 정확히 알아야 한다. 정리되지 않은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이를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문장으로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생각, 주어와 술어로 표현되지 않은 생각은 생각이 아니

다. 그저 잡념의 덩어리일 뿐이다. 글을 쓰지 않는다면 당신은 바라볼 수도, 판단할 수도, 계획할 수도 없다. 글쓰기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가장 큰 이점은 머릿속을 어지럽게 돌아다니는 수많은 잡념을 하나의 명확한 개념으로 정리해 눈에 보이는 활자로 고정해준다는 것이다(Want To Become An Amazing Leader? Write More).

미국 최대의 유통 공룡인 아마존의 창업자 제프 베조스는 글로 목표를 세운 리더 중 한 사람이다. 자기 집 차고에서 시작된 아마존을 20여 년 만에 시가총액 1조 달러가 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기업으로 키워낸 그는 글을 통해 명확한 목표를 전달하고 실행했다. 그는 회사 역사상 처음으로 주주들에게 보내는 첫 번째 주주 서한에 회사가 추구할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담았다. 장기적인 이익이야말로 자신과 아마존이 추구하는 유일한 목표라는 사실을 밝히며,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 즉시 실행해야 하는 구체적인 행동 방안도 일목요연하게 설명했다. 그는 이어 고객에 대한 집중, 장기적 관점의 투자, 성공뿐만이 아닌 실패를 통한 혁신, 망설임 없고 과감한 투자, 미래 현금 흐름 최대화, 전략적 사고 과정의 공유, 최대한의 비용 절감, 성장에 우선순위를 둔 투자, 스톡옵션에 기반한 직원 인센티브 제공이라는 아홉 가지 행동 방안을 내놓았다. 그는 단순히 회사가 1년 동안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 주주들에게 설명하는 것을 넘어 장기적인 전략을 밝히고, 세부 과제의 우선순위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기 위해 글을 쓴 것이다.

베조스에게 글쓰기는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을 정확히 분석하고, 회사를 키우기 위한 원대한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하고, 주주와 회사 내부 구성원들에게 전략에 대해 알리는 모든 과정을 포괄하는 연속적인 흐름이었다. 베조스와 같은 리더들도 글을 쓰는 것을 어려워한다. 자기 생각을 글로 표현하는 것은 그 누구에게도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최고의 리더들은 항상 글을 쓴다. 글을 씀으로써 얻는 이익이 글을 쓰기 위해 치러야 하는 비용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이다. 제프 베조스는 1999년부터 지금까지 20년 넘게 주주서한을 작성해오고 있다. 매년 주주서한을 보낼 때마다 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과제를 언급하고, 우선순위를 정해 로드맵을 전달하며 기업을 한 방향 정렬하고 있는 것이다.

리더의 글은 공동체가 추구해야 할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할 뿐만 아니라,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행되어야 하는 세부 과제의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리더의 비전이 정확하고 정확한 표현으로 담긴 글은 공동체가 지향해야 하는 목표를 바르게 설정하고, 세부



과제의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설정하며, 공동체가 동일한 방향으로 전진하게 만든다.

마이크로소프트를 창업한 빌 게이츠 역시 글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다. 그는 글이야말로 자신에게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내는 최고의 전략적 무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글쓰기를 통해 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을 구상하고, 여러 세부 과제들의 우선순위를 정한 뒤 이를 흔들림 없이 밀어붙이는 빌 게이츠의 역량은 코로나 때 가장 크게 발휘되었다. 2020년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전 세계가 혼란에 휩싸였을 당시 빌 게이츠는 글을 씀으로써 빠르고 정확하게 전략을 수립하고 사람들에게 동참을 요구했다. 약 20년 전부터 운영해온 개인 블로그 <게이츠 노트>를 통해 대중과 직접 소통해온 그는, 2020년에는 50편의 글을 올리면서 감염병의 급속한 확산을 막고, 백신을 개발해 바이러스를 물리치기 위한 그의 전략을 세상에 알렸다.

빌 게이츠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전략을 세 단계로 나눠서 제안했다. 그리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명확하고 단순한 말로 자신의 전략을 제시했다. 그는 먼저 미국 전역에 걸쳐 '셋다운'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연방 정부의 확진자 검진 역량을 강화하며, 데이터에 기반해 치료법과 백신을 개발하자고 주장했다. 지금은 당연하게 느껴지는 말이지만, 당시 정부와 일꾼들이 모두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전략을 먼저 수립하고 단계별로 접근하는 방법을 제시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빌 게이츠는 마스크 대란이 일어날 것을 예견하고 의료진과 필수 인력들에게 우선적으로 장비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언급했고, "백신을 개발하는 것은 질반의 승리에 불과하다"며 제약 회사들이 미리 대량으로 백신을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렇게 빌 게이츠의 글은 위기의 순간에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단계별 전략을 전하는 중요한 도구가 되었다.

최고의 리더는 자신이 세운 전략을 실행하기 위해 글을 쓴다. 그들은 전략을 통해 자신이 힘을 집중해야 하는 과제들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자신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며, 위기를 헤쳐나갈 방법을 제시한다. 그리고 자신이 글을 통해 밝힌 대로 실천해나간다. 이처럼 글쓰기는 리더에게 있어 자신의 목표를 현실로 바꾸는 최고의 전략적 도구가 된다.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발행인 겸 편집인: 김성국
L.A. Office: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Grace Mission University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2023년 봄학기 개강 (2월 6일)
학위과정: 교육학 철학박사(PhD in Educational Studies), 교차문화학 철학박사(PhD in ICS)
특혜: 한인신학교 최대규모의 도서관과 e-Library, 저렴한 교육비, 다양한 학교 장학금 수여

월드컵 통해 개종자들..

(1면에서 계속)

오픈도어스는 월드컵 경기가 열리는 시간을 표시한 특별한 달력을 제작했으며, 이는 웹사이트(www.opendoorsuk.org)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다. 이들은 이와 관련된 기도일기도 제작했다.

오픈도어스는 "월드컵은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 경기 중 하나이며, 축구에 특별히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끌어들이는"이라며 "이는 월드컵 주최국인 카타르를 포함하여 기독교 박해 국가 목록에 있는 7개국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으로 몇 주 동안은 그들을 위해 기도할 시간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만큼 전 세계 축구팬들이 2022 월드컵 개막국인 카타르에 모여드는 가운데, 공식적으로 등록된 교회들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오픈도어스의 중동 지역 대변인 아나스타하 하트맨은 "월드컵을 보기 위해 방문한 사람들은 카타르의 박물관, 고대 유적지 및 쇼핑몰을 찾을 것을 권유받는다"면서 "그들이 할 수 없는 단 한 가지는 교회를 방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카타르 내 기독교 공동체는 방문객들 시야에서 완전히 가려졌다"고 지적했다.

카타르에 공식적으로 등록된 모든 교회들은 수도 도하의 메사이미르 복합단지 안에 위치해 있다. 이는 비무슬림 방문객 접근이 허용되는 외국인 공동체의 일부지만 외부에는 십자가와 같은 종교적 표시가 금

지돼 찾기조차 어렵다.

도착 카타르인들에게는 이러한 예배에 참석하거나 교회 건물에 접근하는 것이 제한된다.

아나스타샤는 "코로나19가 처음 확산한 2020년, 정부는 교회들에 외부에서 모이는 것을 금지한다는 통보를 보낸 바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후 100개 이상의 교회들이 아직도 등록 허가를 받지 못했다"며 "이제 전염병이 완화됐고 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방문하고 있지만, 교회의 문은 아직도 굳게 닫혀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카타르 내 기독교인들에게 자유가 필요하다"며 "종교적인 표현은 인권이며, 부끄러운 것처럼 숨겨야 할 게 아니"라고 강조했다.

교회가 교회답다면...

(1면에서 계속)

교회라고 할 때 떠오르는 건 첨탑과 지붕 위 튀어나온 큰 십자가라는 정형화된 이미지이다. 또한 근사한 옷을 입고 장의자에 앉은 교인들이 오르간과 성가대와 함께 찬양하는 모습 정도이다. 그게 아니라면, 라디오에서 들은 노래를 부르고 또 트렌디한 청바지를 입은, 보다 현대적인 교회의 모습을 떠올릴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게 교회의 핵심이 무엇인지 말하지 않는다. 동료 신자들을 돌보라. 또 전 세계와 기독교 역사를 통틀어 살았던 형제자매들을 생각해 보라. 교회는 결코 건물이나 옷 입은 스타일로 정의되지 않는다. 교회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삶이 변화된, 신부로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로 구성된다.

성도라는 한 가족으로서,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딤후 1:12)이다. 기둥과 벽은 건물의 무게를 지탱하고 강화함으로 건물이 부서지지 않도록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지로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받들고 굳건히 함으로 세대를 초월해서 흔들리지 않는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를 모퉁잇돌로 삼아 그 위에 세워졌다(엡 2:20).

"네가 원하는 걸 하는 게 가장 중요해"(You do you), "너만의 진실을 찾으라", "네 마음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라"는 Z세대가 성장한 개인주의 문화를 형성하는 잠언이다. 권위와 법을 비웃는 것은 당연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기대되고 칭찬받는 일이 되었다. 나는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될 수 있고 또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는 거짓말로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는 책임이라는 단어를 좋아하지 않으며, 동시에 다른 사람이 내게 이래라저래라 하는 것도 반기지 않는다.

그러나 Z세대는 교회를 절실히 필요로 한다. 히브리서 10:24-25을 보자.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니다." 우리는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영원으로 가는 길에서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라는 명령을 받았다.

Deliberate Church(의도적인 교회)에서 마크 데버(Mark Dever)와 폴 알렉산더(Paul Alexander)는 이렇게 썼다. "개인의 걸음걸이도 중요하지만, 언약 교회라는 가족 안에서 상호 세워주는 관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도움을 이용하지 않는다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추구하는 우리의 신앙 여정은 가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행보에서 얼마나 독립할 수 있다고 믿으면서 자신을 속인다.

성경 전체에는 "서로"라는 명령이 많이 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엡 5:19), "여러분은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약 5:16),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다정하게 대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십시오"(롬 12:10), "서로 한 마음이 되고"(롬 12:16). 지역 교회의 형제자매와 교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있을까?

좋은 의도를 가진 많은 교회 지도자가 Z세대가 교회 문을 넘도록 큰 노력을 기울인다. 그러나 Z세대는 그리스도인의 욕망이 이 세상의 욕망을 초월할 때만 교회에 남을 것이다. 멋진 예배와 흥미진진한 프로그램 그리고 풍부한 교제의 기회 등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은 교회의 목적에 관해서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지역 교회가 세상에 온통 마음이 빼앗긴 사람을 불러들이고 그들을 정도로 세상의 매력을 갖춘 교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되어 세상과 다른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이다.

Z세대를 어떻게 참여시킬지 생각하는 게 도움이 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소중한 것을 교회도 똑같이 소중하게 받아들이기 때면 Z세대에게도 통하는 호소가 가

능할 것이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하고, 그분이 가지 있게 여기는 것을 가지 있게 여길 때, 우리 Z세대는 지역 교회를 사랑할 것이다.

그러면 나를 하여금 계속해서 교회에 나오도록 만드는 건 무엇일까? 나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지만 동시에 겸손한 마음으로 섬긴다. 교회의 등록 교인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설교만 듣고는 낯선 사람처럼 교회 문을 나서게 아니다. 우리에게 교회의 가족이 되는 특권이 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사용하여 신자로 구성된 회중을 세움으로 우리 각자는 교제에 참여한다(롬 12:3-8). 데버와 알렉산더는 이렇게 말한다. "회원 개개인의 삶에서 지역 교회가 우선순위를 차지하게 하는 것은 현대 사회가 주는 이기적인 개인주의를 억제하고 겸손한 섬김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교회를 의무감의 대상 또는 피해야 할 장소로 보도록 하는 유혹도 있다. 그러나 어느 날 교회로 걸어 들어온 한 명의 Z세대가 교회에서 어떻게 우리가 다른 형제자매를 격려하는지 방법을 알고 싶다고 묻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우리가 다른 형제자매들과 나의 죄를 나누기 시작하고, 서로 기도하고, 또 서로를 책임지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목표로 교회를 섬기기 위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어떻게 될까?

겸손을 드러내자. 하나님을 경배하고자 하는 열망을 나타내자. 봉사를 열망하자. 오로지 복음을 위해 내가 가진 재물을 쏟아부자.

Z세대여, 그대에게는 교회가 필요하다. 그리고 교회도 그대를 원하고 있다.

시론

감사, 이 한 마디면 충분합니다



류응렬 목사 (와싱턴중앙장로교회)

C.S 루이스가 <영광의 무게>에서 하는 고백입니다. "저는 태양이 떠오른 것을 믿듯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것을 보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다른 모든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태양이 없으면 아무것도 볼 수 없듯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보기 시작한 사람, 루이스가 그 자신이었습니다. 무신론자였던 그는 영국 옥스포드와 캠브리지 대학교에서 문학을 가르쳤고 어느 순간 진정한 빛 되신 주님을 만남으로 인생의 위대한 전환을 맞이합니다. 예수를 한 성인으로 보면 기독교는 하나의 종교일 뿐입니다. 예수님을 전능자로 보면 기독교는 생명의 진리가 됩니다.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진정한 감사의 삶이 시작됩니다.

탈무드에 보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행복하게 감사하기도 하지만 감사하면 행복이 더욱 깊어지기도 합니다. 유대인은 아이들에게 감사하는 말이 혀에 붙을 때까지 아무런 말도 가르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에게 나오는 공통점이 일상에 감사가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일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요, 목자요, 구원자이시기에 감사하며, 그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살려내신 생명의 사역에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사람은 호흡하는 모든 순간,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경이롭고 감사합니다.

감사란 추수감사절에만 가지는 것이 아닌 것처럼 감사를 드리는 것은 특별한 일에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통해 비쳐오는 햇살을 맞이할 수 있다면 오늘이라는 최고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일터가 있어 건강한 맘을 흘릴 수 있는 것, 눈이 밝아 책을 읽고 성경 말씀을 읽을 수 있다면 특별한 은혜입니다. 어린이가 웃음소리를 들을 수 있고, 해 질 녘 물들어 가는 서녘 하늘을 바라보며 창조주를 향해 기도를 드릴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아름다운 삶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조그만 반딧불도 감사하는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태양 빛을 주셨고, 한낱의 삶에 감사하는 사람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는 평생 기도하는 말이 '감사합니다' 한마디뿐이라 해도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 감사하다고 하실 것입니다.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낳고 감사는 인생이라는 채소밭에 시원한 물을 뿌리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될 것입니다.

아름다운 가을이 지나고 안식의 시간 겨울이 다가오는 날에 우리 영혼이 하늘과 이웃을 향해 감사의 기도로 물들어 가기를 기도합니다. 하루하루를 기적 같은 아름다운 날들로 만드는 한 마디, 가장 행복한 인생으로 물들이는 한 마디, 감사하는 말입니다.

preachchrist@kcpc.org

Candidacy Qualification

Those who wish to become candidates are encouraged to send in all the necessary documents to begin the process. Those who prefer the use of English may submit all documents and take exams in English.

Exam Subjects

- a) Written Test :
 - (1) Church History (2) Systematic Theology
 - (3) American Church History (4) Constitution of KAPC
 - b) Written Assignment :
 - (1) OT Exegesis Paper (2) NT Exegesis Paper
 - (3) Thesis Paper (4) Manuscript of Sermon
- (1) OT Exegesis Text : Isaiah 52:13 - 53:12
 (2) NT Exegesis Text : Hebrews 10:19 - 25
 (3) Thesis Topic : Write about the Reformed Church in the Post-Pandemic era - 'Metaverse and the Lord's Supper'
 (4) Sermon Text : O.T- Amos 8:11 - 14, N.T- 2 Timothy 4:1 - 5
 (5) Instructions for the written assignments :
 * Plagiarism will not be tolerated.
 You must submit one hard copy and email a PDF file of each written assignment according to the following regulations:
 Ⓞ Use 8-1/2" by 11" letter size papers.
 Ⓞ Use 12-point font (Times New Roman), 1-inch margins, double space, use page numbering, proper footnoting, and include bibliography.
 Ⓞ Both thesis and exegesis papers should be about 25 pages each in length excluding title page and bibliography. The length of the sermon text should correspond to 30 minutes of actual preaching time.
 Ⓞ Use a common academic writing format, and all quotes, and cited information must accompany proper references (i. e. footnotes or endnotes).
 Ⓞ All PDF files must be emailed to euihan@hotmail.com with the following instructions:
 ① The subject line must include your name
 ② File attachments must include your name and assignment title. (Ex. KisungSon-OTExegesisPaper.pdf)
 c) Oral Interview



The following information is regarding the "Pastoral Ordination Candidacy Qualification and Exams," which will be offered in May of 2023

Pastoral Ordination Candidacy Qualification and Exams

Instructions for Documents and Written Assignments Submission

- a) All required documents and written assignments must be submitted by March 31, 2023. (Packages post-marked before March 31, 2023 are valid. No late submissions will be accepted.)
- b) The candidates will not receive back the submitted documents and assignments.
- c) The results of the exam will be announced during the 47th meeting of the General Assembly (May 23-26, 2023). The candidates who successfully sustain the examination process will be announced on the floor and will be given Ordination Candidate Qualification Certificates.

Exam Date and Place

- a) Dates : May 22(Mon)~23(Tue), 2023
- b) Place : Korean American Presbyterian Church of Queens (Vice Moderator Rev. Seoung Kook Kim)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Accompanying Documents

- a) A copy of the certificate of graduation of Bachelor & M. Div. degree or a letter from the registrar (or the president of a seminary) certifying that the candidate is expected to graduate through June 30 of 2023.
- b) An official copy of transcript for the whole M. Div. program.
- c) A letter of recommendation from the moderator of a Presbytery that the candidate is under care.
- d) An official letter from a Presbytery (issued by the clerk) confirming that the candidate under care is in good standing.
- e) Curriculum Vita (CV) including a clear history of faith (For example, the year of baptism, the name of the church where the baptism was given and the name of the officiating minister, etc.)
- f) Two passport-size photos of the candidate.
- g) Fee: \$100 (USD). Notice after receipt

Miscellaneous Information

- a) Candidates must reserve rooms appropriately for the dates of exam (May 22-23, 2023) through Rev. David H. Park
- b) Candidates may use personal notebook computers for written exams, but the following conditions must be met :
 - (1) The personal notebook must contain only a Word Processing program.
 - (2) The screen is not to be changed during an exam. Violators will not be tolerated and will result in dismissal from the examination room.
 - (3) One must bring his own printer. Any mechanical problems will not constitute a valid excuse for failing to submit the exam on time.

Submit To

Rev. David H. Park
Address : 21-01 124th st. College Point, NY 11356 U.S.A
Cell : (917) 254-0887 E-mail : heepark91@gmail.com

Contact Persons for Information

- a) Chair of the Exam Committee Rev. Kisung Son (703) 725-6468 663927@gmail.com
- b) Clerk of the Exam Committee Rev. David H. Park (917) 254-0887 heepark91@gmail.com

Korean American Presbyterian Church

총 회 장 : 홍기표 목사
서 기 : 안병권 목사
고시부장 : 손기성 목사
고시부서기 : 박희근 목사



목장일기



김재열 목사
(뉴욕 센트럴교회)

헨델이 만난 그리스도를...

헨델은 1685년에 독일 할레에서 외과 의사인 아버지와 목사의 손녀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음악과는 거리가 먼 집안에 한밤중에 어디선가 묘한 음악소리가 들렸습니 다. 부모는 그 음악 소리나는 곳을 찾아 집안 구석구석을 살피다가 다락방에서 클레비에라는 건반 악기를 연주하고 있는 7살의 헨델을 발견했습니다. 조카의 음악적 재능을 알아본 외삼촌이 부모 몰래 악기를 헨델에게 줬던 것입니다. 8살 때부터 동네 교회에서 오르간 교육을 받았고 17세때

그 교회의 오르간 연주자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고집으로 법대에 갔지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서 음악으로 전공을 바꿨습니다. 헨델의 천부적인 음악 재능을 알아본 앤 여왕 후원으로 영국에 귀화하여 오페라 46곡과 오라토리오 23 작품을 남겼습니다. 당대의 최고의 음악가로 우뚝 섰지만, 일생이 평탄하지 않았습니 다. 수많은 음악가들의 질투와 음모로 여러 차례 파산을 하면서도 헨델은 저들을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질투를 은근히 즐겼다고 합

니다. 그가 50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거듭되는 공연 실패와 재정적인 파산 상태로 건강마저 잃었는데 하루에 3시간 이상을 넘기면 안 된다는 의사의 온천요법을 알고도 헨델은 하루 9시간 이상 온천에서 나오지 않았고... 그의 집념으로 건강을 회복했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비워둔 집으로 돌아온 헨델에게 찰스 제닝스라는 오페라 작사가가 보내온 한 문치의 소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 다. 처음엔 별 관심을 두지 않던 헨델이 마음이 곤고한 어느 날 제닝스의 흠어진 가사

를 눈여겨보는 순간에 강력한 마음의 끌림과 벅찬 감동에 사로잡혔습니다. '그가 징계를 당함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며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마음을 받았도다!' '내 주는 살 아게시고...' 그렇치!!! 그래... 바로 이 분이야! 헨델은 자신도 모르게 오선지 위에 음표를 그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해 보낸 받은 이 메시아를 보라! 헨델은 먹는 것도, 자는 것도 잊은 채로 시간 가는 줄도 모르면서 작곡에 몰두했습니다. 집사가 식사를 챙겨 그의 방문 앞에 섰을 때 방에서 들리는 대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곤 했습니다. 헨델은 마치 아주 높은 신분과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날은 통곡을 하면서 울면서 부르짖는 소리도 들렸다고 합니다. 매번 마다 손도 대지 않는 식기를 치워야 했습니다. 훗날 헨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의 영이 나의 오른손을 잡으시고 오선지 위에서 춤을 추셨다!'고... 헨델은 무려 259페이지의 대곡을 24일 만에 마칠 수가 있었고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뜻으로 SDG(Sola Deo Gloria) 사인을 남겼습니다.

헨델의 메시아는 그의 나이 58세에 더블린에서 초연을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청중들이 몰려 왔는지 한 사람이라도 더 입장하기 위해서 부인들의 스커트 안에 넣는 후프 링을 빼어야 했고, 신사들의 장식품을 칼을 차지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예수의 생애 중에 부활을 찬양하는 감동의 할렐루야를 찬양할 때 당시의 영국왕 조지 2세가 감격 속에 벌떡 자리에 일어남으로 모든 관중들도 함께 일어났고 이것이 관례가 되어 오늘까지도 할렐루야가 불리워질 때마다 모든 청중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주님을 맞이하는 관습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 위대한 메시아는 초연때부터 지금까지 288년 동안 한 번도 공연이 중단된 적이 없으며 매년 부활절과 성탄절 계절에 정기적으로 연주되며 처음부터 모든 수익금은 자선헌금으로 보내졌다고 합니다. 헨델은 74세가 되었을 때 자신의 곡 연주회에 참석을 했는데 '어나팔 소리가 울리리'가 시작될 때 심한 현기증을 겪고 부축을 받고 귀가했는데 며칠 후 '나는 성 수난일에 죽고 싶다'고 말한대로 헨델은 그 날에 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그의 시인

은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혔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찬양대가 매년 메시아를 연주한 지가 벌써 25년이 되었습니다. 전곡을 연주한 횟수가 이제 12회에 들어섰습니 다. 필자는 메시아 연주회에 가면 매번 깊은 졸음에 빠지곤 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스크린에 주제곡에 맞는 성화와 배경 그림들과 한글 가사가 뜨기 때문에 졸음에 빠질 여유가 없게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더욱이 어린 자녀들을 동반하기 위한 기도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신앙은 문화를 만들고, 문화를 신앙을 만들어 냅니다. 불신 문화가 관을 치는 현대 속에서 굳어져 가는 어린 자녀들과 청소년들에게 이제라도 그리스도의 문화로 채색하기 위한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12월 11일 주일 오후 3시부터 현장 연주회와 온라인으로 중계하는 메시아 연주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특별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어린 자녀들의 영혼 속에서도 헨델이 만났던 그리스도를 함께 만날 수 있도록..." 할렐루야!!!
jykim47@gmail.com

푸/른/초/장

박근재 목사
(뉴저지교회회장)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석하게도 하나님께서 신신당부하셨던 만민의 절대적인 신앙과 순종으로 살아가질 못합니다. 더구나 하나님에 대해 불신실함으로 인해서 온전한 평화도 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로부터 공격을 받아 위기에 몰렸을 때마다 회개하고 도움을 요청하기만 하면, 즉시 지도자를 세워서 도와주셨습니다.

사들과 함께 하룻 샘 근처에 진을 치게 하시고 미디안 사람들과 전투를 하게 했습니다. (1절) 그리고나서, 기드온에게 하시는 말씀이 전쟁터에서 싸우는 것이 무서워서 싸울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집으로 돌려보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니다. 즉, 최소한 십 삼만 오천명 대 만 명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는, 하나님께서는 만 명도 아직 많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중에서 더 추려내겠다는 겁니다. 일단 물가로 만 명을 데리고 가서 무릎 꿇고 물을 마신

여기에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 주장이 있는데 첫 번째 주장은 무릎 꿇고 물을 마신 사람들은, 주위에 대한 경계심이 부족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군인으로서 전쟁에 적합한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장은 무릎 꿇고 물을 마신 자들은, 평소에도 이방인 숭배를 위해 무릎을 꿇었던 자들로, 다시 말하면 이상 숭배에 익숙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려보내셨다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당시 대처 상황으로 보서는 이들의 거리는 멀리 떨어져 있던 터라 아주 긴박한 상황은 아니었고, (1절) 또한 만일 이방 신 숭배

무릎 꿇고 물을 마신 사람을 돌려보낸 하나님의 본심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오늘 본문 2절에서 우리는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즉, 만일, 그들이 전쟁에서 이기면 자기들 힘으로 이긴 줄 알고 교만해질 것이기 때문에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 힘으로 싸워 승리했다고 자랑하는 것을 보고 싶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 이유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무릎을 꿇지 않고 물을 훔아먹은 사람들을 선택하고 무릎 꿇고 물을 마신 사람을 돌려보낸 하

택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결국, 역사적으로 말하면, 만일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 사람이 300명이었고, 무릎을 꿇지 않고 물을 훔아먹은 사람들이 9천7백 명이었다고 했었다면, 하나님께서는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 사람을 선택하셨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전쟁에서의 승리는,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 능력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그들로 하여금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즉, 어떻게 물을 먹었느냐는 방식에는 관계없이 오직 300명의 소수를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심 사사기 7:1-8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기드온이란 사람 역시, 이스라엘 백성의 위기 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미디안 족속은 원래,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 아브라함의 서자였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애굽 사람에게 팔아넘긴 상인도 바로 미디안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미디안 사람들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한 존재로 생각하고 '발람'이라고 하는 이방술사를 고용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했던 민족이기도 했고(민 22장) 이스라엘 족속의 남자들이 미디안 족속 여인들과 음행을 벌여서 하나님께 형벌을 받는데 기여(?)한 민족이기도 했습니다. (민 25장) 그러니까 결국 한마디로, 미디안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아주 귀찮고 골치 아픈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지겹도록 괴롭혀왔던 미디안 족속이 또다시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려 7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8번째 되던 해에 드디어 기드온을 지도자로 세우셔서 이스라엘 군

사들은 돌려보내고, 무릎을 꿇지 않고 물을 먹은 자들 300명만 남기라고 하십니다. (4-6절) 그렇다면 여기에서 궁금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왜? 무릎을 꿇지 않고 물을 먹은 자들을 남기라고 하시고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 자들은 돌려보내라고 하셨느냐는 것입니다. 그 의도는 무엇이었느냐는 것입니다.

에 익숙한 사람들이었다고 한다면, 이들은 오히려 이방 신을 숭배하는 풍속과 전통을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미디안 족속과 대면해서 싸우기에는 더 많은 이점이 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두 가지 주장은 그리 설득력 있는 주장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릎 꿇지 않고 물을 먹은 사람들만 선택하고

나님의 본심은 '두 무리 중에 더 작은 숫자의 무리를 선택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더 작은 숫자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본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힘으로 싸워 승리했다고 자랑할까 봐서, 자기들 힘으로 이긴 줄 알고 교만해질까 봐서 그래서 작은 숫자의 무리를 선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그토록 지긋지긋하게 쫓아다니며 귀찮게 하고 골치 아프게 했던 미디안 족속처럼, 여러분의 신앙과 삶에서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장벽이나 사람이 있으십니까?
지금 이 시간 해결의 열쇠는 "나 여호와와 갓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의 도움은 나 여호와로부터 만이 시작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방법이나 방식과는 전혀 관계 없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제일 먼저,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제일 먼저 찾고 '나의 도움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장벽을 무너뜨리시든지, 넘어가게 하시든지,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든지,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을 분명히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소이다"라고 고백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300명을 갖고 13만 5천명을 물리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분명히 도우실 것입니다.
mission4jsc@gmail.com

아는 게 힘이다! 가치관 전쟁



새라킴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사탄 숭배자들이 최고 좋아한다는 날!



이태원 할로윈 축제, 수백 명의 목숨을 잃어도 아깝지 않을 만큼 '할로윈'은 가치있는 기념일일까요? 할로윈의 기원과 유래, 그 실체를 알아본다.

거의 한 달이 지났지만, 사랑하는 고국의 이태원 할로윈 사건은 여전히 우리 모두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어떤 이유로 그 자리에 있었든,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난 어린 영혼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무너집니다. 안타까움과 아픔도 있지만, 앞으로 이런 일들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할로윈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정보 그리고 영적 분별력이 필수적일 것입니다. 한 예로, 한국은 미국과 유럽의 할로윈 문화를 그냥 '파티' 문화 정도로만 알고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상 할로윈의 기원과 유래를 알고 나면 할로윈기념일을 다시 생각하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주님은,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 Reject every kind of evil!" (살전 5:22)라고 명령하십니다.

할로윈(Halloween)의 기원과 유래

할로윈의 기원과 유래는 1,4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AD 600년경, 가톨릭 교황 보니파스 4세(Boniface IV)는 5월을 All Saint's Day로 만들어 전 세계 가톨릭들이 크리스천 영웅들을 존경하고 기억하는 의미로 경축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톨릭교의 주장이었던 교황 그레고리 3세(Gregory III)가 5월에 기념하던 "All Saint's Day"를 아일랜드와 유럽 나라들이 기념하던 "Samhain삼해인"인 11월 1일로 옮겼습니다.

할로윈의 탄생! 10월 31일을 "All Saint's Day" 휴일 전야로 만들어서 전야일 이름을 "All Hallow's Eve" 또는 "All Hallow's Even"라고 불렀습니다. 당시에 "Hallow"는 거룩,

"Even"은 저녁을 의미했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름이 단축되어 "Hallowe'en"이 되고 오늘날은 "Halloween 할로윈"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결국, 10월 31일은 "죽은 자들의 전야 축제일"이 된 것입니다.

11월 1일은 무슨 날이었나?

11월 1일은 본래 Samhain(싸윈)이라는 유럽의 유명한 켈트 축제(Celtic festival) 날이었습니다. 참고로, 한글은 삼해인이라고 적지만, 원천지인 irish 에서는 싸윈이라고 부릅니다.

Samhain 을 지키던 Celts(켈트)족은 2000년 전에 지금의 아일랜드, 영국, 북부 프랑스에 주로 살았던 유럽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었다고 역사는 전합니다. 삼해인 축제 때 이들은 죽은자의 영혼을 부르는 의식들을 불을 사용하기도 하며, 죽은 자들을 불러 삶의 지혜를 구하는 의식을 올리기도 하며, 겨울 동안 악령이 자기들에게 악령을 하지 않도록 악령을 달래는 의식으로 동물들을 희생 제사로 바쳤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흉측한 의식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몇백 년 후, 11월 2일을 가톨릭에서는 "All Souls Day to Honor the Dead - 죽은 영혼들 기념" 날을 만들었는데, 이런 행사들의 의도가 차츰 "Day of the Dead - 죽은 자들의 날 기념"이 되어 세계 곳곳에서 행해졌습니다.

한 예로, 가톨릭이 주로 많은 멕시코 경우, Mexican Day of the Dead (멕시코인 죽음의 날 기념)을 하는데, 이 Mexican Day of the Day는 "Day of the Dead"가 원천지입니다.

Day of the Dead 행사의 근본은 가장 잔인한 행사 중 하나로 역사 속에 적힌 "피 흘림 의식"을 문화로 지키던 Aztecs 아즈텍 문명과 Olmec

(올멕 문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Day of the Dead는 결국 귀신을 불러 교류하고 귀신을 달래기 위한 제사상을 차리며 동물 희생을 넘어 인간 희생을 처절하게 시키는 거까지 발전되어, 이러한 의식들이 할로윈날인 10월 31일 혼합된 것입니다.

한 예로, 2019년에도, 특별히 멕시코 또는 삼해인을 기념하는 유럽 이민자들이 많은 샌디에고 캘리포니아, 덴버 콜로라도, 플로리다 같은 곳에서는 사람들 키의 2-3배 되는 해골 전신 인형 장식, 어린이 얼굴에 해골 페인팅 등, "Day of the Dead" "죽은 자들의 축제" 등을 한다는 뉴스들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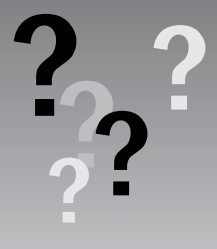
하지만, 이런 축제들은 매우 질서가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주류 언론들은 할로윈과 혼합된 Day of the Dead를 어떻게 해서라도 이쁘게 포장하고자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을 기념하는 날"이라고 하고, "Happy Halloween" "Celebrate Halloween"이라고 하지만, 이 행사는 위에서 언급했듯이 끔찍한 아즈텍 신당에서 일어났던 일을 기념하는 목적이 뒤에 숨어있으며 결국은 "죽음의 영, Spirit of Death"를 부르고 기념하는 날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탄 숭배자들이 증언해주는 사실 할로윈은 사탄숭배자들이 스스로 밝히기를 자신들이 가장 좋아하는 날이라고 말할만큼 사악한 날이 되버렸습니

다. 결론적으로, 할로윈이라는 날은 처음부터 어둡고 비성경적이었던 사실입니다. 가톨릭의 "All Saints Day - 모든 (죽은) 성자들의 날"과 아일랜드 및 유럽의 미신을 기념하는 Samhain (삼해인 - 죽은 영혼과 교류하는날)기념일이 혼합되어 탄생한 할로윈은, 그 이후, 가톨릭에서 만든 "All Souls Day - 모든 죽은 영혼들 위로"의 날이 "Day of the Dead 죽은 모든 영혼을 기리는 날"과 한 번 더 혼합되면서 그 변질은 시간이 가면서, 사탄을 숭배자 리더였던 사람의 말처럼,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한해 중 사탄이 최고로 좋아하는 날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과 youtube 는 tvnext.org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셀비치사랑교회 / (310)749-0577
TLspc0316@gmail.com

Q: 오늘 미국은 청교도의 신앙으로 미국을 황무지에서 꽃을 피워 세계에서 일등가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현 미국은 청교도의 신앙과 사상을 잃어버리고 인본주의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미국을 위험에 빠뜨리는 사상들이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로미타에서 권명옥 권사님

A: 역사적으로 미국은 17세기 칼빈과 초빙글리의 영향을 받은 칼빈주의자인 청교도들이 이 미국에 기독교 국가를 건설하고자 이 땅에 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으로 이 미국을 자유 민주주의의 위대한 미국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미국에 변질된 사상과 철학이 침투해 미국인의 신앙을 썩벌레처럼 변질시키기 시작했습니다.

"That's good" 실용주의 개념으로 좋더라 "성경이 좋다가 아닌 경험적으로 좋더라"

첫째가 계몽주의(Enlightenment)입니다. 18세기 프랑스와 유럽을 휩쓸었던 이성 제일주의의 인본주의 사상입니다. 계몽주의는 데카르트의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의 영향을 받았는데 여기서 생각한다다는 것을 이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성의 빛이 이 무지몽매함과 미신, 종교적 광신, 불합리한 관습이나 전통 같은 어둠으로부터 사람들을 깨어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성의 빛이 비추어져야 무지하고 미성숙한 인간의 모든 것은 계몽될 수 있고 진보가 일어난다는 사상입니다. 이것으로 이성주의와 합리성과 인간 중심의 인본주의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상은 성경의 절대적 권위를 부인하고 성경도 이성의 눈으로 볼 때 믿기 힘든 초자연성을 지닌 것은 신화와 같으니 믿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성으로 받아들일 만한 것만 믿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합리주의, 이성주의의 영향으로 19세기 독일을 중심으로 자유주의 신학이 태동하고 이 미국에까지 불어옵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으로 기독교 신앙을 지키기 위해 근본주의(Fundamentalism)운동이 일어납니다.

둘째는 실용주의(Pragmatism)입니다. 이 사상은 19C와 20C에 많은 영향을 받아 미국인들에게 삶 깊은 데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 생활 사조인데 유용성(usefulness)에 의해 결정하는 점에서 공리주의입니다. 이 사상은 진리는 경험에 의해 검증되고 변화한다고 보는 경험주의입니다. 이것은 존듀이의 교육철학에 의해 더 확장되는데 한마디로 인간의 경험이란 실험실에서 "이렇게 해보니 좋더라" 그러던 것이 결국 좋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흔히 쓰는 "That's good"하는 것은 실용주의적 개념에서 좋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좋다고 말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해보니 경험적으로 좋더라" 하면 그게 내게 좋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계약 결혼 같은 것입니다. 오늘날 이혼도 많은데 젊은이들이 먼저 함께 동거하며 살아보고 그 후에도 좋으면 그때 결혼해도 늦지 않다는 유용성을 바탕으로 한 생활철학입니다. 이것은 성경보다 경험과 실용성을 강조하기에 인본주의 사상입니다. 이 실용주의 철학이 오늘날 미국 대학생과 청년들에게 만연합니다. 아주 위험한 인본주의 사상입니다.

셋째가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의 다원주의(Pluralism)입니다. 이것은 절대 권위를 부정하고 다양성을 강조합니다. 동성애자를 성소수자로 여겨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한국 남산을 등산하여 올라가는 데 여러 길이 있듯이 구원의 길도 기독교에만 구원의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천주교, 불교, 이슬람, 샤머니즘에도 나름대로 구원의 길이 있다는 사상을 낳았습니다. 구원은 오직 한 길 즉 예수님을 믿을 때만 있다는 예수의 유일성을 강조하면 그것은 '배타주의'라고 여깁니다. WCC 운동은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는 것을 부정합니다. 그러나 태양이 하나이고 어머니가 한 분이라는 것이 불편하지 않듯이 오직 예수님에게만 구원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감사한인교회 담임목사: 구봉주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평일오전찬양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영어예배: 오전 9:30, 11:30 Tel: (714)521-0891, www.thankingchurch.com 6858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나성순복음교회 담임목사: 진유철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영성) 주일영양예배: 오전 11:30 수-금요 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323)813-4489, www.lsgc.com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	남가주든든교회 담임목사: 김현인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 Youth 예배: 오전 11:00 수 일 학교: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40(월-금) Tel: (213)481-2779, facebook.com/srscsa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	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목사: 노창수 주일 1부 예배: 오전 7:20 주일 2부 예배: 오전 9:2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20 평일 예배: 오후 1:20 영어권 (중소-KDC, 킹덤드림센터) 1부: 오전 9:20 2부: 오전 11:20 Tel: (714)772-7777, Fax: (714)772-0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대흥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정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9:30,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금요찬양예배: 저녁 7:30 Tel: (310)719-2244, www.dkc.org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디아스포라선교회 Korean Diaspora Mission Center 대표: 전영자 목사 "세계속에 흠뻑 있는 우리의 동족을 위해 일하는 선교회" 주일예배: 오후 2:30 Tel: (213)559-7728 (전화 팩스 전용), Tel: (213)210-6880 2333 Beverly Blvd., LA, CA 90057
미주양곡교회 담임목사: 지용덕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매일) Tel: (213)380-9377, 9079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	미주명안교회 담임목사: 임승진 주일 1부: 오전 8:30 주일 2부: 오전 9:45 3부: 오전 11:00 (청년부)4부: 오후 1:45 새벽기도(화-토): 오전 6:00 Tel: (213)381-2202, www.mjca.org 170 Bimini Pl., Los Angeles, CA 90004	복음장로교회 담임목사: 이광형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전 2:00(대학부) 금요예배: 오후 7:30 Tel: (562)694-6214 1751 W. La Habra Bl., La Habra, CA 90631	베델한인교회 담임목사: 김한오 주일 1부: 오전 7:15 주일 2부예배: 오전 9:15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성인영양예배: 오전 9:15, 11:30 일일예배: 오후 1:30-수일예배: 오후 7:30 주일학교: 오전 9:15, 11:30 Tel: (949)854-4010, www.bhc.org 18700 Harvard Ave., #A Irvine, CA 92612	세계사망교회 담임목사: 오세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213)-235-7691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	셀비치 사랑교회 (Seal Beach Sp-Rang Church) 담임목사: 이정현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6:30 Tel: (310)749-4756 셀비치 리저널즈 Clubhouse 3 Lobby(주일) Clubhouse 3 room 1(수)
열매교회 담임목사: 김요섭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Tel: (323)737-3009, Cell: (213)215-8523 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엘피스사역원 원장: 박은송 목사 (LA복음연합감리교회합동목사) 상담사목: (월-금)오전 10:00~4:30 상담사목: (토)오전 9:45 (101호) 사역대상: 1. 여성사역자 2. 교회밖신도 여성성도 사역: 1. 목회상담 2. 가정사역 3. 말씀사역 4. 네트워킹 사역 www.elpisfamily.org Tel: (213)700-8928 1200 S. Manhattan Pl., LA, CA 90019	은혜한인교회 담임목사: 한기홍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금요성경침례: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6:00(토) 은혜제기기도회: 365일 24시간 오픈 Tel: (714)446-6200, www.gracem.com 1646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주님세운교회 담임목사: 박성규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30(청년)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성령대방목: 오후 7:20(금) Tel: (310)325-4020, www.junimchurch.com 17910 Prairie Ave. Torrance, CA 90505	주님의영광교회 담임목사: 신승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어) 주일 3부예배: 오후 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저녁 8:00 목요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Tel: (714)646-9259 www.socalsamsungchurch.org 16800 Imperial Hwy, Yorba Linda CA 92886	
코너스톤 교회 담임목사: 이종용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Tel: (310)530-4040(CH), www.cornestonely.com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	토렌스조은교회 담임목사: 김우준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본당) 주일 2부예배: 오전 9:45 (본당)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본당)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본당) 수요일예배: 오후 8:00 (본당) 새벽기도회: (월-토) 오전 5:30 (본당) Tel: 310-370-5500, www.torancecc.org 196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하늘소망교회 담임목사: 김덕수 주일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수요일예배: 오전 9:45 (101호) 수요일예배: "아침같이 일어나서" 오전 9:30 오후 7:00 Tel: (213)600-2348, dbck.kim@biola.edu 3416 W. 1st St., LA, CA 90004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토요칼럼

김한맥 선교사 (문화동원연구소 대표)



권리와 의무

기독교인들은 거의 성도(聖徒) 즉 거룩한 무리라 불린다. 이 성도들을 창조주 하나님은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고 말씀하신다. 사람이 가장 많이 보는 신체는 손이 아닐까 싶다. 하나님의 손바닥에 성도의 이름을 새기셨다는 것은 잊지 않으신다는 약속이다. 하나님은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찢고 꿰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그들을 이끌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이스라엘 영토는 크지도 않거나 대다수가 광야와 사막이다. 사람의 눈으로 보아서는 절대 찢고

꿰어 흐르는 땅이 될 수가 없다. 이에 대해 신 11:12은 이렇게 설명한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와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하나님이 관심하시고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는 땅이 곧 찢고 꿰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이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창조주이시다. 광야와 사막일지라도 그 말씀 한마디면 시냇가의 옥토로 변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 즉 관심이다. 성도를 그런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기셨다면 하나님

의 돌보심과 관심이 지대하시리라 하는 것은 너무도 자명(自鳴)하다. 그래서 성도를 은혜에 빚진 자라고 부른다.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질 만한 어떤 자격도 공로도 없으나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돌보심을 받는 까닭이다. 이 시대를 살고있는 인구가 약 80억이라고 한다. 그러나 그 중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얼마나 될까? 스스로 신자(信者) 혹은 성도라고 자칭하는 수가 20억에도 미치지 못한다. 전체인구의 약 4분의 1에 불과하다. 나머지 60억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전혀 알지 못한다. 이념과 체제와 타종교에 가려졌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그런 자들 역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고 그네들 역시 마지막 때에 있을 심판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이다. 모든 자는 다 죄인이고(죄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죄인은 필연적으로 "죄의 삯은 사망"이라는 철칙에서 제외될 수 없다는 점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믿지 않는 자들 역시 그리스도가

절대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네들이 이 구원받을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것은 권리가 된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롬 10:13)고 하셨으니 그 이름을 부르지 못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이 된다. 문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믿지 못하는 자들 역시 구원에 대한 갈망은 성도들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라는 것은 그네들 역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은 마땅한 권리를 나타낸다. 이들 60억의 권리를 충족시켜야 하는 사명 즉 의무는 20억의 기독교인인 성도들에게 있다. 권리(權利)가 타협될 수 없듯 의무(義務) 또한 유예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는 전도자 혹은 선교사가 되어야 한다. 전도와 선교는 교회의 절대적 사명인 것이다. 안타까운 것은 이런 권리와

의무에 대해 듣고 불려야 하는 자도 부르게 해야 하는 자도 등한히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성도라 부르는 20억 중에서 전도와 선교가 의무라는 사실을 자각하는 숫자가 얼마나 될까? 아마도 많지 않을 것이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는 안일무사로 그 엄중한 의무에서 탈피하려고 한다. 얼마 전 이태원에서 참사가 발생했다. 아직 다 밝혀진 것은 아니나 말겨진 의무를 다하지 못한 탓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의무는 이렇게 막중하다. 많은 자들이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게 되면 수많은 생명에게 화(禍)가 미치게 된다. 벌써 그 책임감으로 자신의 목숨을 끊기도 하고 법의 엄정한 심판으로 패가망신을 당할 처지에 놓여 있기도 하다. 전도와 선교를 소홀히 한 책임은 이보다 훨씬 더 혹독할 수 있다. 영원히 죽지 않는 영혼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주의 이름을 불러 구원을 받을 수도 있었을 영혼이 나의 무책임함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지 못해 사망의 심판을 당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물으실까? 이는 참으로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마땅한 권리를 가진 자들이 그것이 권리를 알지 못해 요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더 위험한 이유다. 60억 이상의 영혼들이 우리도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야 되겠다고 요구하지 않으니 20억의 성도들은 그것을 의무로 인식하지 못한 채 세월을 낭비하고 있으니 도적 같이 일할 그 마지막 때가 어찌 두렵지 않을 수 있랴. 지금은 20억의 성도들이 깨어있어야 할 때다. 그리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권리를 지닌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게 하고 믿게 하도록 전해야 한다. 그리하여 "기록된바 아담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라는 칭찬으로 빛진 자가 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곧 복(福)이다. 복을 받은 자가 되려는가? 그러면 세상의 60억 권리자들을 향해 외치자.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이름! hanmackim@hanmail.net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연준 "2024년이나 금리 인하"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고위 인사들이 내년 조기 금리 인하 가능성을 일축했다. 금리 인상 보폭은 조절하겠지만 추가 긴축은 필요하고, 높은 수준의 금리가 한동안 유지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는 28일(현지시간) 뉴욕경제클럽 주최 행사에서 "아마도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는 2024년이나 우리가 명목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는 단계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 기본적인 견해는 지금보다 금리를 더 올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며 "아직 할 일이 많고, 최소 내년까지 제약적인 정책을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뜨려 인플레이션 기대치를 높일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메스터 총재는 "긴축을 너무 일찍 중단하면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치르게 된다"고 말했다.

中 전역 코로나 봉쇄 반대 시위, 제2 천안문 사태 재현 우려

코로나19 봉쇄에 반대하는 시위가 중국 전역으로 번지면서 1989년 제2의 천안문 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영미권 외신들은 현재 시위가 천안문 사태 때보다 확산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고 시진핑 국가주석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고 설명했다. 강경 대응으로 일관할 경우 사태가 최악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27일(현지시간) 현재 중국의 봉쇄 반대 시위가 천안문 사태와 다른 특징 2가지를 가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천안문 시위는 주로 베이징에 국한됐지만 현재의 시위는 지리적으로 훨씬 더 널리 퍼져 있고 과거와 달리 다른 도시의 시위 상황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한번 불이 붙으면 견딜 수 없이 번질 수 있는 환경이라는 얘기다.

저항의 대상과 목표가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분명한 것도 천안문 사태 때와 다르다. 제로 코로나 정책은 중국이 운영되는 방식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정도로 반항이 큰 사항이라고 가디언은 전했다.

외신들은 3연임을 시작한 시 주석의 리더십 시험대에 올랐다고 분석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중국 전역의 시민 항의를 자세히 설명하며 "3연임으로 수십 년 동안 가장 지배적인 지도자의 지위를 확고히 한 지 불과 한 달 만에 시 주석에게 새로운 압력을 가했다"고 평가했다. NYT는 중국의 시위대가 '민주주의와 법치' '표현의 자유' 등 민주화에 대한 갈망을 드러낸 점에도 주목했다. 그러면서 "1989년 천안문 광장에서 민주적 변화를 요구했던 것처럼 이번 불만이 서로 다른 배경을 지닌 시위자들을 협력하게 한다면 공산당의 가장 큰 두려움이 현실화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코로나19 확산을 피하려고 '통제'에 베풀었던 시 주석이 이제 그 통제 때문에 분노에 직면했다"며 체스에서의 '추크츠방'(약수를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을 뜻하는 체스 용어)에 빠졌다고 평가했다.

관건은 시위에 대한 시 주석의 대응 기조다. 강경 일변도로 대응할 경우 상황은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가디언은 "시 주석은 시위를 자신의 코로나 정책뿐만 아니라 공산주의 이념과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반대 의견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 주석은 2013년 당 총서기에 임명된 후 "이념적 방어"가 풀리면 다른 방어가 매우 어렵다"

며 공산주의 수호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현재의 시위가 공산주의를 위협할 경우 시 주석이 강경 진압에 나설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외신들은 홍콩 반정부 시위대를 탄압했던 폭력적인 수단이 중국 본토에서도 사용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가디언은 "시 주석에게 이번 사태는 세계 무대로 돌아온 지 불과 몇 달 만에 그의 국제적 위신에 타격을 주는 것"이라며 "그는 이제 치명적으로 보일 위험이 있고, 위험할 정도로 고립됐다"고 평가했다.

백악관, 中 향해 "평화시위 권리 지지"

미국 백악관이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반발 시위와 관련해 "평화적 시위의 권리를 지지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번 시위에 대한 대응이 자칫 미·중 갈등의 새 도화선이 될 수 있는 만큼 사태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도 당장은 중국 정부를 자극하지 않겠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분석됐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28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코로나19 봉쇄에 평화롭게 항의하는 중국인들에게 보내는 대통령의 메시지가 무엇이라는 질문에 "전 세계의 평화로운 시위자들에게 전하는 우리 메시지는 동일하고 일관적"이라며 "사람들은 집회의 권리가 있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정책이나 법, 명령에 대해 평화적으로 항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커비 대변인은 봉쇄 정책에 대응해 개인의 자유를 되찾으려는 노력을 지지하라는 거듭된 질문에도 "백악관은 평화적 시위의 권리를 지지한다"고 답했다. 그는 미국이 중국 정부에 시위대와 언론인 구금 중단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우리는 이를 자세히 주시하고 있고, 추이를 지켜볼 것"이라고만 말했다.

앞서 NSC는 대변인은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코로나19를 억제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이라며 "미국과 전 세계에는 평화적으로 시위할 권리가 있고, 여기에는 중국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커비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의 직접적인 반응을 묻자 "대통령은 세계 곳곳에서 시위하는 사람들을 위해 말하지 않을 것"이라며 "시위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우리가 하는 것은 평화적 시위권에 대한 분명한 지지"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중국 국민과 중국 정부가 말해야 할 순간"이라고 말했다. 다만 "대통령은 중국 내에서 진행되는 일에 대해서 보고받고 있다"며 "대통령은 이를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중국 내) 시위 활동에 대해 신경을 쓰고(mindful) 있다"고 언급했다.

외신은 백악관의 대응이 '히잡 미착용 의문사'로 이란에서 반정부 시위가 촉발됐을 때의 대응과는 온도 차가 있다고 지적했다. 로이터는 "이달 초 바이든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시진핑 주석과 직접 회담을 했다"며 "백악관 반응은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고 신중할 길을 가고자 하는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폴리티코도 "중국 시위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 대응은 이란 시위에 대해 고위급에서 신속하게 목소리를 높여 지원한 것과 극명한 대조"라고

지적했다. 중국에 강경한 공화당에서는 더욱 강력한 연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마이클 맥콜 의원 등은 성명을 통해 "중국 공산당에 맞서기 위해 모든 위험을 무릅쓰는 이들의 용기에 경의를 표한다"며 시위대를 향한 직접 지지를 표현했다.

공화당 소속 마코 루비오 상원의원,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은 성명을 통해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 공산당에 맞서고, 중국 국민과 연대할 의지를 보여주지 못했다. 비겁하다"며 "미국은 자유를 용감하게 외치는 중국인을 변함없이 지지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바이든 행정부는 반정부 시위를 벌이는 이란 시민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며 "시위가 지속한다면 중국과 관계 악화를 막고 갈등을 피하기로 합의한 바이든 행정부에 도전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계 최대 활화산 하와이 화산 38년만에 분화

세계 최대 활화산인 미국 하와이의 마우나로아 화산이 38년 만에 분화를 시작했다.



28일(현지시간) 미국 지질조사국(USGS)에 따르면 하와이 시간으로 27일 오후 11시30분(한국시간 28일 오후 6시30분)쯤 해발고도 4170m인 마우나로아 화산 분화구에서 용암이 분출했다. 분화 15분 후 USGS는 기존의 화산활동 주의보를 경보로 상향하고, 항공기상 코드도 황색에서 적색으로 격상했다.

하와이섬(빅 아일랜드)을 구성하는 5개 화산 중 하나인 마우나로아는 지표면에 있는 가장 큰 활화산이다. 마우나로아 화산은 1843년 이래 33차례 분출했는데, 최근 크게 분출한 사례는 1984년 3월 24일부터 4월 15일까지다. 그전에는 1926년과 1950년 분출로 산기슭 마을들이 파괴된 적 있다.

현재 마우나로아 화산의 분화에 따른 용암 분출은 정상부의 칼데라(화산폭발 후 수축으로 생겨난 함몰 지형)인 '모쿠아웨오웨오' 부분에 국한된 상태로 인근 마을을 위협하는 상황은 아니라고 USGS는 밝혔다. 하와이 화산 관측소도 현재 용암이 열곡대(rift zone·화산 정상기 아닌 능선에서 용암이 분출할 수 있는 갈라진 지형)로 이동한 징후는 없다고 전했다.

다만 전례로 볼 때 마우나로아 화산 분화의 초기 단계에서 용암 흐름 등이 급격히 변할 수 있으므로 주민들은 대비책을 점검하라고 USGS는 당부했다. 하와이주 당국은 공식 대피령을 내리지 않았지만, 자발적으로 주거지를 떠난 일부 주민을 위해 대피소 2곳을 설치했다.

기상청은 하와이섬 일부 지역에 화산재가 0.6cm 정도로 쌓일 수 있다며 화산재 주의보를 발령했다. 기상청은 "호흡기 질환자는 실내에 머물고 야외에 있는 모든 사람은 마스크나 천으로 입과 코를 가려야 한다"면서 작물과 동물 피해, 차량과 건물 손상, 식수 오염, 전력 시스템 중단 가능성 등을 경고했다.

USGS는 지진 활동 등 징후를 감지해 화산 분화를 예보했다. 현재 모쿠아웨오웨오 부근에 마그마 유입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선교 안국 그 역사를 찾아서

-8.15 해방 전 한인 선교사



손상웅 목사 (한미교회사연구소 소장)

159. 안원규(1877-1947)

안원규(安元奎)는 1877년 8월 30일 서울에서 안문학과 정 씨 사이에서 장남으로 태어나 1889년 이후 파주에서 상업에 종사하였다. 25세가 되던 1903년에 돌아와 있던 그는 하와이 노동 이민 대열에 섰다. 두 번째 노동 이민 선박이었던 '콱탁'을 타고 그해 3월 3일에 그는 하와이 호놀룰루에 도착했다. 오하우섬의 와이파후에서 노동하면서 그는 김이제가 목회하던 와이파후 한인감리교회에 출석하였다. 1년간 농장 노동을 한 후 그는 그곳에서 잡화상을 하였다.

을사늑약이 있던 이듬해인 1906년 3월에 안원규는 오하우섬의 와이파후에서 전도원, 정상교 등과 함께 공동회를 조직하고, 회장이 되어 동포 간의 환란상구와 일화배척을 전개하며 민족의식을 고취했다. 헤이그 특사 사건을 계기로 일제가 광무황제를 강제로 퇴위시킨 1907년에 공동회 등 하와이에 있던 20여 한인 단체가 한인합성협회를 결성하여 국권 회복, 동포 환란 구제 그리고 교육 발달을 꾀할 때 안원규가 부회장으로 활동하였다.

한편 하와이 선교 연회 감독이었던 데이비드 H. 무어 박사가 1908년 1월에 호놀룰루 제일감리교회에서 소집한 하와이 선교 연회는 안원규를 오하우섬의 와이파후 지역의 한인 선교를 위한 권사로 임명하였다. 이곳에 온 지 5년이 되던 때였다. 그가 파송을 받던 날 임정수를 이곳과 와히아와 지역의 순회 지역 전도사로 파송하면서 박종S도 권사로 파송하였다. 안원규가 임명될 당시 이 지역의 한인감리교회는 600달러 정도의 예배당이 있는 큰 교회였다. 학습 교인이 69명이었으며, 세례 교인이 39명이었다. 지난 한 해 동안 8명의 어린이와 6명의 성인이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본 교회는 해외 선교비로 2달러와 내지 선교비로 10달러를 헌금하여 선교하는 교회였다. 그뿐만 아니라 어린이 기금으로 2달러, 교회 교육을 위하여 2달러, 미국 성서 공회에 1달러, 부인 내지 선교회에 2달러, 일반 연회헌금으로

2달러를 헌금하여 총 21달러를 헌금하였다. 1909년 3월까지 1년 동안 세례를 받은 8명이 안원규의 권사 사역의 결과로 보인다. 그런데 그달에 보고된 바로는 지난 연회의 보고와 비교할 때 크게 줄어 학습 교인이 19명이었고, 세례 교인이 9명이어서 매우 실망했을 것이다.



안원규

통일된 한인 단체 결성에 따른 여론으로 1909년 2월에 하와이 한인합성협회와 미국 본토의 공립협회를 결합하여 국민회를 결성하였고, 그해 6월에 안원규가 국민회 아래 하와이지방총회 부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이 무렵 양복 재단을 배운 안원규는 호놀룰루에서 양복점을 운영하여 부유한(?) 생활을 하였다. 1910년 3월에 모인 제5회 하와이 연회에서 하와이 연회 감독이었던 에드윈 H. 휴즈 박사는 흥기H와 함께 안원규를 오하우섬의 호놀룰루에 있는 한인감리교회 권사로 임명하면서 안원규는 담임목사로 파송 받은 민찬호 목사와 협력하며 사역하게 되었다. 하와이 연회에 보고한 바에 따르면 임명받은 해에 호놀룰루 한인감리교회에 등록한 42명의 학습 교인과 76명의 세례 교인 외에도 예배에 참석하는 원입 교인이 안원규의 목회 대상이 된다. 하와이에서 으뜸 되는 한인교회답게 호놀룰루 한인감리교회에는 교회 건물이 두 동이나 있었는데 6,300달러에 해당했고, 1,000달러의 시세인 사택도 있었다. 1년 동안 6명이

어린 세례를 받았고, 12명이 성인 세례를 받아 성공적인 목회였지만, 교인 1명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슬픔은 오래갔다. 국권 피탈이 되던 1910년에 하와이 지방 총회의 대표자들이 대동공민단을 조직할 때 안원규는 재부가 되어 국권 피탈 반대 운동에 동참했다. 위의 휴즈 박사가 1911년 1월에 소집한 제6회 하와이 연회는 작년에 이어 안원규를 호놀룰루 한인감리교회 권사로 파송하였다. 그래서 이날 파송을 받은 민찬호 목사는 1906년 이후 본 교회를 목회하여 본 교회를 잘 알고 있었지만, 작년과는 달리 권사가 안원규 혼자여서 바빴을 것이다. 그달에 보고한 바로는 호놀룰루 한인감리교회에 12명의 어린이 세례자와 86명의 성인 세례자가 있었는데 유동식 교수는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 85년사에서 그해 교인이 107명이라고 적고 있다.

1913년 10월에 하와이 농상주식회사 사무원이 된 안원규는 이듬해인 1914년 2월에 하와이 지방총회 농상부원으로 선출되었고, 그해 4월에는 하와이 기독교 청년회 장제가 되어 회장 이승만을 보좌했다. 그해 박종수 등과 함께 안원규는 오하우 가할루 지방에 있던 1,500에 이커의 파인애플 농장을 기부하여 대한인국민회 하와이 지방총회의 연무부 사업으로 대조선국민군단을 설립하는데 후원했다.

해마다 안원규가 호놀룰루 한인감리교회 권사로 파송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하와이 선교 연회 감독이었던 윌슨 S. 루이스 목사가 1916년 2월에 제 11회 하와이 연회를 소집하고 사회를 맡았다. 이 연회에서도 안원규는 호놀룰루 한인감리교회 권사로 파송을 받았다. 이날 그 외에도 조석진과 윤기상이 권사로 임명되었고, 목사로는 송헌수가 파송을 받았다. 그달에 하와이 연회에 보고된 바로는 학습 교인이 85명이었으며, 세례 교인이 138명이었는데 비거주 교인이 22명이나 되었으며, 두 동의 건물이 있었고, 32,000달러의 시가를 기록했다. 그런데 예배당과 사택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6,922달러를 지급했으나 4,755달러의 빚이 있었다.

1918년 3월에 호놀룰루 제일감리교회에서 제13회 하와이 선교연회를 소집한 아드나 W. 레오나르드 감독은 1908년 이후 권사로 파송을 받았던 안원규를 호놀룰루 한인감리교회 지역 선교사로 파송하였다. 이날 목사로는 로스앤젤레스에서 목회하던 방화중을 파송하였고, 지역 전도사로 파송을 받은 자는

그 외에도 남시Y(남세윤?)와 백낙M이 더 있었고, 한재명과 이태성과 연계해서 본 교회 권사로 파송되었다. 이전과는 달리 많은 사역자를 파송한 데에는 1914년 말 이후로 조짐을 보여온 교회 분규가 현실화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존 W. 워드만 감리사 후임으로 하와이 선교 연회 감리사로 부임한 윌리엄 H. 프라이 감리사와 한인중앙학원 원장이었던 이승만의 한인 선교에 관한 견해 차이로 시작된 갈등이 호놀룰루 한인감리교회뿐만 아니라 각 섬에 있는 한인감리교회의 분열로 확산되었다.

호놀룰루 한인감리교회만 하더라도 위에 소개한 유동식 교수는 1918년의 호놀룰루 한인감리교회 교인이 171명이었다고 적고 있지만, 안원규가 지방 전도사로 파송 받던 그달에 보고된 호놀룰루 한인감리교회의 교인수는 위의 숫자에 훨씬 못 미친다. 보고에 따르면 성인 세례자가 17명이었고, 어린이 세례 공부를 하고 있었고, 학습 교인수가 34명에 불과하여 모두 합해야 100명이 되지 못했다.

교회가 어수선했던 가운데 호놀룰루 한인감리교회는 한국에서 능력 있는 전도사로 알려진 김유순 목사를 초빙하여 호놀룰루 한인감리교회와 각 섬에 흩어져 있던 한인감리교회에서 부흥회를 열어 분열을 해결하고자 했다. 10개월간 노력한 김 목사는 한인들의 마음이 정치적 인 충동에 이끌리어 있어서 부흥회를



와이파후 한인감리교회 (1905년)

고비로 호놀룰루 한인감리교회 교인수가 급속한 감퇴를 나타내고 있었던 상황에서 하와이 선교연회는 2년 연속으로 방화중 목사를 파송하고 지방 전도사와 권사를 한 명씩 더 파송하는 특단을 취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어려운 교회에 부임한 방화중 목사가 갑자기 사임하게 되어 호놀룰루 한인감리교회는 후임을 찾아야 하는 또 다른 과제를 안게 되었다. 큰 노력을 기울인 본 교회와 프라이 감리사는 한인 선교 사업에 실망하면서도 소망을 잃지 않았다. 안원규도 지방 전도사로서 자신의 소인이 어느 때보다 무거웠을 것이다. 이 무렵 그는 이화여전을 졸업한 이경성과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었다.

이듬해 1920년 2월에 호놀룰루 제일감리교회에서 모인 제15차 하와이 선교 연회를 인도한 A.W. 레오나르드 감독은 공식이었던 호놀룰루 한인감리교회 목사로 황사을 목사를 파송하였다. 그런데 그해 연회록에 안원규를 파송했다는 기록이 없고, 1920년 이후 그의 파송 기록은 없다. 이로써 그는 1908년 이후 1920년까지 권사와 전도사로서 하와이 선교 연회의 파송으로 한인교회를 섬겼다고 보게 된다.

교회 사역과 함께 민족 운동을 병행하던 안원규는 이후 민족 독립운동에 크게 이바지하게 된다. 대한인국민회 하와이 지방총회가 해체된 이듬해인 1922년에 하와이 대한인국민단이 조직되어 부단장을 맡았다. 1933년에 대한인국민회 하와이 지방총회가 다시 조직되었는데 1936년에 하와이 지방총회 부회장을 역임하였고, 1941년에 대한인국민회 하와이 지방총회 대표로 호놀룰루에서 열린 해외한족대회에 참석하여 민족운동전선의 통일과 독립운동 강화를 노력하였다. 위의 해외한족대회가 재미한족연합위원회를 조직할 때 그가 호놀룰루에 설립된 의사부의 위원장으로 활동하였다. 그리고 그가 1944년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미외교위원회 위원으로 한국 독립을 위해 활동하였고, 1945년 1월에 하와이 지방총회 총회장으로 선임되었는데 이듬해에도 연임되어 활동하였다.

안원규는 호놀룰루 린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하던 중 1947년 5월 22일에 향년 7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대한민국의 탄생을 보지 못하였으나 대한민국 정부가 그의 독립운동을 기리어 1995년에 그에게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여 국립 대전 현충원에 안장되었다. damien.sohn@gmail.com

교회 사역과 민족 운동 병행 한인교회 섬기며 민족 독립운동 기여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동부(NY, NJ)교회

뉴욕새사람교회 담임목사: 이종원 주일 예배: 오전 10:30 목요 예배: 오전 10:45 수요 예배: 오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Tel: (718) 461-2810 (Fax: 경음), (917) 733-3411 46-04 162 St. Flushing, NY 11358	뉴욕양무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준성 주일예배: 오후 2시 수요예배: 오후 8시 Tel: (718) 662-6611 147-01 38th Ave. Flushing NY 11354	뉴욕센트럴교회 담임목사: 김재열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 (월-토) www.cpcny.org, Tel: (516) 387-9940, 9942 (E/M) 154 Old Westbury Road Old Westbury, NY 11568	뉴저지성도교회 담임목사: 허상희 주일예배: 오전 11:00 창립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8:10 새벽기도회: 오전 5:40 (화-금) 금요기도회: 오전 8:30 (매주 1주, 3주) Tel: (201) 342-9194, sungdochurch.org 309 State St. Hackensack, NJ 07601	베이사이드 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종식 청년예배: 1부 오전 7:30 2부 오전 9:15 3부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후 6:00 수요저녁예배: 오후 6:00 새벽기도: 오전 5:45 전교인특별새벽예배: 매주 토요일 오전 5:30 Tel: (718) 229-2858, www.nybaysidechurch.com/V2/ 45-62 21st St. Bayside, NY 11361	빛과소금교회 담임목사: 정순원 주일 1부 예배: 오전 7:30분 주일 2부 예배: 오전 11:45분 주일학교: 오후 1:45분 청년예배: 오후 3:20분 새벽기도: 매일 오전 6시 목요일: 오후 8시 토요일: 오후 7시 30분 Tel: (347) 513-1351, cheongsunwon@yahoo.com 45-11 149 St. Flushing, NY 11355
새벽별주님교회 담임목사: 정기태 주 일 예 배: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오후 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월-토) Tel: (917) 733-7387, bmschurch2021@gmail.com 46-08 161 St. Flushing, NY 11358	은누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조문휘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월-토) 오전 6:00 Tel: (845) 359-1458, http://onurchurch.com 10 Oak St. Orangeburg, NY 10962	퀸즈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성국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학교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 Tel: (718) 886-4040, www.kapccq.org 147-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 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 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 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h3>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하와이 및 북미 지역</h3>					
아르헨티나제일교회 담임목사: 최광인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00 주일4부예배: 오후 3:30 주일학교: 주일 12:00 Tel: (54) 114-631-1788, AV. CARABOBO 1253, CAP.FED., B.S., A.S., ARGENTINA	칠레 한인연합교회 주일오전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저녁 7:00 수요기도회: 저녁 9:00 7/14종교개혁: 아침 7:40 유.초.중.고등부예배: 오전 9:30 (주일) Tel & Fax: (562) 556-7628, (562) 341-0389 Santiago Correo - 3 Casilla 325 Chile	토론토 가든교회 담임목사: 유문권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오호예배: 오후 2:00 (영어)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금요예배: 오후 7:30 Tel: (416) 490-9060, www.torontogarden.org 260 Yorkland Blvd., North York, ON M2J 1R7	하와이 행복안교회 담임목사: 이남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성경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Tel: (808) 585-1869 1130 N. Lintz Hwy C-100 Honolulu HI 96817	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일규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후 12:30 (영어) 주일4부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회: 오후 9:00 Tel: (808) 947-5252, www.hawaiichurch.org 2122 Metcalf St. Honolulu, HI 96822	멕시코 현지인 교회 선교사: 임한근 선교사 1. 멕시코 법선 신학교 교수 2. 임하뉴원 신학대학 교수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후 5:00 주일3부예배: 오후 5:00 Tel: (52) 33-3607-4111, hanikim@hanmail.net Goya 530 Manuel, Acuna, Guadalajara MEX(멕시코)

말씀과 땅 (22) - "그 때에"

박성현 박사 (고든콘웰신학대학원 구약학교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그 위에 더 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 할 수도 없다"고 했다.(전 3:14) 요셉은 이 시점에 팔리던 정황 역시 그렇다. 무엇보다 그 사건의 타이밍(timing)을 살펴보자.

"그 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창 37:28)

이 "때"는 요셉의 형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진 후 음식을 먹느라 같이 모여 앉아 있던 때였다.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창 37:25) 그 자리에서 유다는 형제들에게 요셉을 팔라고 제안했고, 즉시 형제들은 합의를 보아 구덩이에서 요셉을 끌어 올렸다. 바로 "그 때에" 상인들이 그 곳을 지나고 있었고 형제들은 요셉을 은 이십에 팔 수 있었다. 그 시간, 그 곳, 유다의 말, 형제들의 결정, 상인들이 지나간 타이밍이 모두 정확히 일치했고, 그 결과 요셉은 종으로 팔릴 수 있었다.

이 "때" 르우벤은 그 자리에 없었다.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창 37:29) 같이 둘러앉아 음식을 먹는데 왜 유독 르우벤만 자리를 비웠는지 알 수는 없지만, 만약 그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요셉이 종으로 팔리는 일은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다. 요셉이 팔린 것을 알고는 자기 옷을 찢으며,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30절) 울부짖는 르우벤의 반응으로 미뤄 보건대, 요셉을 파는 일은 장자 르우벤이 그 자리를 잠시 비우지 않았다면 결코 일어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렇다. 그 "때" 르우벤은 잠시 자리를 비운 것이었다. 다시 말하지만, 르우벤이 그 "때" 없었기에 요셉이 팔릴 수 있었다. 요셉이 형들을 찾아 도단에 이르렀을 때, 형제들은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창 37:20)고 입을 모으고 있었다. 그 때 까지만 해도 르우벤은

그 자리에 함께 있어서 아이들이 요셉을 죽이는 것을 막고, 그를 산채로 구덩이에 던지도록 주도한 바 있다(21절). 창세기 저자는 그 장면에서 르우벤의 의도에 대해 이렇게 설명한다: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더라"(22절). 즉, 요셉이 죽지 않은 것은 그를 살려 아버지 야곱에게 돌려보내려는 르우벤이 그 때,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이란 것이다. 그런 르우벤이 잠시 후 자리를 비웠고, 미디안 상인들은 바로 그 "때" 이 지점을 지나간 것이다. 만약 르우벤이 계속 머물러 있었다면 요셉은 팔려가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요셉은 팔려 가야 했다. 그가 앞서 야곱에 내려가 그의 부모와 형제들이 기근을 피할 수 있도록 발판을 구축하고, 나아가서는 그 후손들로 하여금 크게 장성하여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요셉의 삶을 이끌고 계셨기 때문이

지듯,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서 이들은 일치의 더 함도, 덜 함도 없이, 정확한 시간에 정확히 각자의 역할을 수행했다.

이러한 타이밍의 조절은 야곱이 요셉을 헤브론에서 세겜으로 보내던 때 이미 시작됐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네 형들과 양 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창 37:14)

야곱이 아들들을 걱정한 이유는 바로 이년 전, 그 아들들이 세겜에서 하물의 가문을 살육하고 노략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야곱 일행은 가나안 사람들의 보복을 두려워해야 했는데(창 34:30), 하나님께서 추격당하지 않고 무사히 세겜을 빠져나올 수 있었다.(창 35:5) 그렇게 세겜의 원한을 산 아들들이 세겜에 다시 가 있었는데, 이는 매마른 헤브론에서는

걸은 것이다. 그렇게 걷고, 자고, 쉬고, 먹고, 또 도중에 "방향"한 시간이 합쳐져, 정확하게 그로 하여금 미디안 상인이 나타나 그 "때"를 맞추게 한 것이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그 위에 더 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 할 수



에gypt으로 팔려 가는 요셉

"그 위에 더 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 할 수도 없다"

다. 그리고 이 뜻을 이루기 위해 요셉은 종으로 팔려 가는 고초를 감당해야 했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음이여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차꼬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와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시 105:16-19)

이 섭리에 따라 르우벤은 요셉의 생명을 지켜냈고, 요셉은 구덩이에 던져져야 했으며, 르우벤이 자리를 잠시 비운 그 "때" 형제들은 앉아 음식을 먹다 유다의 말을 들어야 했고,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은 바로 그 "때" 그 자리를 지나며 요셉을 사야 했다. 마치 한 편의 극에서 각본에 맞춰 출연자들이 정확히 무대에 등장하고 사라

더 이상 양을 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야곱은 아들들의 안부가 걱정되었고, "십칠세의 소년"(창 37:2) 요셉을 헤브론에서 세겜으로 보내기에 이르렀다. 대략 50마일, 80km의 거리였다.

그런데 삼일 길을 걸어서 세겜에 도착한 요셉은 "방향"했다: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향하는지라 그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네 형들을 찾으오니 정화건대 그들이 양치지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창 37:15-17)

그 말을 듣고 요셉은 세겜에서 도단까지 13마일(21 km) 길을 더 가, 드디어 형들을 만났다. 도합 63마일(101 km)를

도 없다"(전 3:14)

그렇게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린 요셉은 애굽으로 끌려가 종으로 팔렸다. 그 때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중히" 여겼기 때문에(창 46:34), 목자의 신분으로 애굽에 정착할 수는 없었을 야곱과 그 자손을 위해 하나님은 요셉으로 하여금 종의 신분으로 애굽에 어려움 없이 들어가게 하였고, 그 결과 야곱의 모든 식솔이 그 뒤를 따를 길을 터게 하였으며, 훗날 그들은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기에 이르렀다.

그 "때"의 타이밍은 하나님의 뜻에 정확히 맞춰져 있었고, 야곱, 형제들, 상인들, 그리고 요셉 모두는 하나님의 행하심에 일치의 더 함도, 덜 함도 없이 그 섭리에 따라 움직여 갔다.

spark4@gordonconwell.edu

일상칼럼



변명혜 박사 (아주사퍼시픽대학교 교수)

사역자는 죽어도 주는 사시다

이 주 전에 내가 속한 어느 단체의 연례 회의가 있어서 뉴저지에 다녀왔다. 미국에 온 이듬해인 81년부터 칠 년 가까이 뉴저지에 살았기 때문에 나에게 있어서 뉴저지는 마음의 고향이다. 남편이 개척했던 교회에서 예배도 드리고 옛 성도들도 만나고 싶어서 회의 날짜보다 며칠 일찍 도착했다. 가끔 뉴저지를 방문할 기회가 있을 때 옛 교인 몇 분들과 만나 식사를 하곤 했는데 이번에는 거의 십 년 만에 옛 성도들을 만났다. 다리가 불편해서 거북이 걸음을 하시는 권사님, 한국에 다녀오느라 장시간 비행기에 앉아 있어서 무릎이 아프다고 지팡이를 짚고 나온 전도사님을 보니 내 나이도 육십이 훌쩍 넘은 것을 잊어버린 채 마음이 아팠다. 이제 철십이 지나 팔십을 향해 가는 분들이니 몸이 불편하실 때도 된 것이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다는 말씀이 새삼스럽게 다가왔다. 그래도 내가 스물다섯, 그분들은 삼십 대 중반일 때 처음 만났으니 그분들 마음에 있는 나는 아직도 어리고 젊은 사모이고 내 마음에 있는 그분들은 삼십 대의 활기찬 분들이다.

주일이 되어 사십 년 전 남편이 개척했던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다. 한 겨울, 눈 덮인 넓은 숲을 보여주며 "여기에 교회를 지으면 참 좋겠지?"라고 하던 남편의 말이 아직도 귀에 생생하다. 스케일이 작은 나라는 별 재정적 여유도 없는 개척교회 목사가 무슨 수로 이 넓은 땅을 사려고 하는 것인지 의아해하며 간성으로 "네, 좋겠지요"라고 대답했었다. 그런데 그 숲 속에 아담하게 자리 잡은 예배당이 내 눈앞에 펼쳐 있었다. 개척 후 교회를 짓는다고 80에이커가 되는 큰 땅을 구입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는 LA로 떠났다. 개척 당시 가장 앞장 섰던 장로님과 갈등이 생기자 사심이 채 안되었던 젊은 남편은 다시 개척하려 떠나자고 말했다. 나는 양 떼를 버리고 가는 목자 같아서 왜 우리가 교인들을 두고 떠나야 하는지 마음이 힘들었다. 남편은 개척한 목사가 장로와 갈등하면 교회가 두 개로 나뉘게 되지만 목사가 떠나면 교인들은 다시 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남편의 결정에 짐을 싸서 LA로 이사를 하거나 또 다시 개척을 한 후 일년 반 후에 그는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러나 "사역자는 죽어도 주는 사시다"는 삼십 여년 전 남편이 전했던 설교 제목처럼 남편은 이제 이 땅 위에 없지만, 주님은 살아 계셔서 그가 품었던 비전이 현실이 되어 있었다. 안개 같은 인생은 이 땅 위에서 사라져도 살아 계신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었다.

예배가 끝난 후 남편을 힘들게 했던 장로님의 부인이 인사를 했다. 장로님이 십 이년 전에 돌아가신 소식을 알고 있는지 물었다. 물론 알고 있었다. 추운 겨울날 집 앞에 쌓인 눈을 치우다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고 들었다. 친교 시간에도 곁에 오셔서 아이들 소식을 물으셨다. 언제 다시 이분들을 볼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작별의 인사를 드리고 회의 장소로 옮겼다. 뉴저지에 간 목적인 회의도 잘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공항으로 향하는 우버에서 가을이 완연한 뉴저지의 풍경을 바라보며 남편 생각에 눈물이 났다. "그래요, 당신이 가졌던 비전대로 그 땅에 교회가 들어섰네요. 계속된 갈등으로 교회는 성장하지 못했지만 파킨슨을 가득 채운 차들이 젊은 세대 영여권 예배자를 차라고 하니 참 반가운 일이에요." 집으로 돌아온 다음 날, 모르는 번호의 전화가 오더니 바로 남편이었다. 뉴저지 지역 변호사로서 다시 전화를 했더니 장로님의 부인되는 권사님이셨다. 카톡이 있다고 하려고 사람들에게 내 전화번호를 물어서 한 번 해본 것이라고 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눈물이 들었다. 도대체 이 눈물이 왜 흐르는 것인지, 내 마음 한 구석 깊이 남편을 힘들게 했던 교인들을 향한 서운함이 아직도 남아 있었던 것일까? 아니면 화해라는 단어가 주는 파스함이 마음을 녹였던 것일까?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을 왜 아파했을까? 이제는 들의 풀처럼 지나가는 인생길에서 만나 함께 교회를 세우게 하셨던 것을 감사하기로 한다. 또한 마음속의 고통 뉴저지를 향한 기억은 아름다운 것만 남기기로 한다. 사역자는 죽어도 주는 살아 계심을 목격했으니 말이다.

lpyun@apu.edu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

갈보라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용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오후예배: 오후 2:0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 오전 6:00(토) Tel: (702) 579-7576, Fax: (702) 253-9191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다민족교회 담임목사: 홍귀표 주일예배: 오전 11:30 주일그림교제기도회: 오후 1:00 주일학교: 오전 11:30 수요영광찬양기도회: 오후 8:00 다민족문화전도: 매주(목)오후 4:00-7:00 Tel: (773) 821-1112, estross@yahoo.com 6850 W. Touhy Ave, Chicago, IL 60646	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최해근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매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610) 222-0691, 267-471-7777, Fax: (610) 222-0692 8200 Morris Rd, Lansdale, PA 19346	벅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인환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영 아 예 배: 오전 10: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Tel: (215) 945-1512, Fax: (215) 945-2095 1550 Woodbourne Rd, Levittown, PA 19047	벨렐교회 담임목사: 백신중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8:15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장년) 오후 1:45 디어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410) 461-1235, www.bethelchurch.org 3165 St. Johns Lane, Elkton City, MD 21042	보스턴장로교회 담임목사: 장성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토요일 새벽기도회: 오전 5:3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유치, 유년, 청소년부* (주일) 오전 11:00, (금) 오후 8:00 Tel: (508) 435-4579, www.bostonkorea.org 2 Main St, Hingham, MA 01748
새생명안인교회 담임목사: 정성환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 오 예 배: 오전 11:00 E M 예 배: 오후 7:00(목/토) 새 생 예 배: 오전 6:00(화/목/토) 구 역 예 배: 각 구역별로 한국 학교: 오전 10:20(주일) Tel: (850) 423-9700, Cell: (213) 703-9961 5502 Old Bethel Rd, Crestview, FL 32536	알칸사 제자교회 담임목사: 전남수 주일오전예배: 오전 11:30 주일오후예배: 오후 4:00 수오예배: 오후 7:30 금요찬양: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Tel: (501) 920-9049, www.jejes.com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앵커리지열린문교회 담임목사: 유재일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00 Tel: (907) 344-6446, Fax: (907) 344-3182 8200 Branwood St, Anch, AK 99518	영생장로교회 담임목사: 백운영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Tel: (215) 542-0288, Fax: (215) 542-9037 706 Wilmer Rd, Horseshoe, PA 19044	킬린은누리교회 담임목사: 김성환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0:50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토요일예배: 오후 3: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Tel: (254) 335-1842(H), (254) 501-4933(C) 1000 E. Veterans Memorial Blvd, Killeen, TX 76541	워싱턴메시야장로교회 담임목사: 한세영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EM)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Tel: (703) 841-4447, www.mpcov.org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타코마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성호 주일 영어예배: 오전 8시 주일 1부예배: 오전 8시 50분 주일 2부예배: 오전 11시 주일 3부예배: 오후 1시 수 오 예 배: 오후 7시 새 생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 (화-토) Tel: (253) 536-6675, www.tacomakc.org 9424 S. Yelkum Ave, Tacoma, WA 98444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 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hpress@gmail.com ■ info@chpress.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 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hpress@gmail.com ■ info@chpress.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 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hpress@gmail.com ■ info@chpress.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 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hpress@gmail.com ■ info@chpress.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 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hpress@gmail.com ■ info@chpress.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목회서신



지용덕 목사 (미주양곡교회)

“마음에 들려오는 음성”

세상에는 소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소리들은 제 나름대로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 수많은 소리들 중에서 인격적 의미를 지닌 의사 전달의 소리를 음성이라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소리, 음성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들려오는 소리를 듣는 마의 귀를 가져야 합니다. 특별히 그 소리들 중에서 음성으로 들리는 소리를 듣는 귀를 가져야 합니다.

그 음성 소리를 듣는 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비교적 후회함이 없는 인생을 살아갈 확률이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 음성의 소리를 듣는 귀를 갖지 못하고 분별력 없게 살아간다면 반드시 훗날에 크게 후회하고 가슴 아파 할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잡한 문화구조 속에서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반드시 소리를 듣는 마음의 귀를 가져야 하며 더욱 중요한 것은 들려오는 음성을 듣는 맑은 마음의 귀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들려오는 소리들 특별히 음성을 잘 듣고 분별하는 영적 통찰력을 가진 사람인 듯합니다. 그는 수많은 의사 결정의 과정에서 들려오는 그 음성들을 잘 듣고 처신 한 것을 성경은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그 절호의 시간에 들려오는 소리, 그 음성을 듣고 원수를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비껴남으로 후일에 매우 유익한 위치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연을 통해서 들려오는 그 음성을 듣고 아름다운 시편을 쓰기도 하였습니다. 그는 또 사람들의 소리를 잘 듣는 왕으로서 선정을 펼침으로 후대에 성군이라 칭함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들려오는 그 소리를 그 음성을 잘 듣는 마음의 귀를 가져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도자라면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리더들은 공동체 구성원들의 그 말 없는 소리를 듣는 마음의 귀를 가져야 합니다. 교회를 섬기는 저는 가끔 내 사랑하는 교우들의 그 말 없는 소리를 듣지 못하거나 외면함으로써 얻은 나쁜 결과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교인들은 직

접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 없는 마음의 소리를 목회자에게 전해줍니다. 그 말 없는 교우님들의 그 소리를 잘 듣는 것이 목회의 상식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들의 믿음 소리에까지 귀를 기울이시듯이 지도자들은 공동체의 구성원들의 깊은 믿음과 절규와 간청하는 소리를 듣는 마음의 귀를 가져야 합니다. 그 들려오는 소리를 듣고 목회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에게 들려오는 우리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맑은 마음의 귀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보내오시기 때문입니다. 아침저녁으로 들려오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를 가짐의 행복과 축복성은 엄청난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소리들의 홍수 속에서 살아갈

니다. 그 많고 많은 소리들 중에서 우리가 들어야 할 소리 곧 음성은 오직 우리 주님의 소리입니다. 주님이 정확하게 들려주시는 음성, 저는 그 말씀의 소리를 듣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우리를 지도 하려는 수많은 소리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각양각색의 인본주의적 소리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가을이 저물어 가고 겨울의 문턱이 성큼 다가오는 이 계절에 조용히 들려오는 소중한 사람들의 소리를 듣는 마음의 귀가 열리지기를 바랍니다.

진지하고 엄숙하게 들려오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잘 듣는 마음의 귀, 영적인 귀를 가지고는 사역을 감당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살롬

cyd777@hotmail.com



3050차세대목회자 OC교계연합 감사의 밤에서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3050차세대목회자 OC교계연합 감사의 밤

“교계가 연합할 수 있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3050차세대목회자 OC교계연합 감사의 밤이 11월27일(주일) 오후 5시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 친교실에서 OC교협, OC목사회, OC장로연합회, OC기독교전도회연합회, OC여성목사회 공동주관으로 성황리에 열렸다. 심상은 목사(OC교협회장)는 “오늘 감사의 밤에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감사하다”며 “을 한해를 뒤돌아 볼 때 하나님

께서 모든 것을 하셨다는 고백을 하게 된다. 교계가 연합할 수 있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말했다. 이날 감사의 밤엔 OC지역 교계단체는 물론 OC한인회에서도 참여하였으며 참석한 자들이 2022년 한해를 뒤돌아보며 맡겨진 사역을 함께 할 수 있음을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다. 은혜한인교회 찬양팀(인도권상욱 목사)의 찬양인도로 시

작된 감사의 밤은 3050 차세대목회자 새벽기도회 영상이 소개되었다. 심상은 목사 인도로 시작된 감사예배는 정창섭 장로(OC장로협)가 대표기도 했으며 은혜한인교회 중창단이 특송했다. 이어 한기홍 목사가 ‘항상 기뻐하라(살전 5:16-18)’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다. 한기홍 목사는 “오렌지카운티 지역 단체장들 특별히 열매라고 볼 수 있는 3050차세대 목회자들이 한자리에 함께해서 감사하다”며 “성도들도 목회자들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녀들은 항상 기뻐해야 한다. 왜냐하면 행복은 기쁨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기뻐할 수 있는 삶이 되는 것은 소유론적이 아닌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에 기뻐할 수 있는 것”이라 강조했다.

이어 민승기 목사(교협이사), 김영수 장로, 신용 집사가 감사의 말씀을 전했으며 윤성원 목사가 축도했다. 윤우경 권사 사회로 열린 2부 감사와 나눔 시간은 식사와 교제의 시간으로 진행되었으며 이날 모든 순서는 주도진 목사 기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은혜한인교회 40년사 출판기념회에서 한기홍 목사가 참석자들에게 40년사 책자를 전달하고 있다

은혜한인교회 40년사 출판기념회

“꿈을 꾸고 이루며 땅 끝까지”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가 창립 40주년을 맞아 출간한 40년사 “꿈을 꾸고 이루며 땅 끝까지” 출판감사예배가 지난 11월 22일(화) 저녁 6시 은혜한인교회 비전센터 친교실에서 열렸다.

이날 한기홍 목사는 “지난 40년을 돌아보면서 한차례 위기는 코로나 팬데믹이었다. 이 가

운데 교회가 텅 비었고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 등을 감당해야 할 일이 많은데 기가 막혔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팬데믹 가운데 더 많은 헌금이 들어와 오히려 선교를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셨다”고 말했다. 한 목사는 “이 모든 과정을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모든 게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다”며 “오늘 우리 교회의 모든 것이 우리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다만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셨다. 지난 40년사는 에베소서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순간순간 어려운 가운데서도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시고 역사해주신 그 하나님 은혜를 기록한 책이 오늘 나온 은혜교회 40년사”라고 말했다.

이날 김섬 장로의 사회로 진행된 감사예배는 허영조 장로의 기도, 지경 집사의 특송, 한기홍 목사의 40년사 출판 감사의 말씀으로 이어졌다. 또 박병섭 목사(국제총회 총회장)와 영 김 연방하원의원, 프래드 정 폴러턴시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한기홍 목사는 이날 40년사에 서명하여 참가자들에게 전달했다.

<박준호 기자>

미주장신대와 청운대학교 MOU 체결

“두 교육기관의 협력을 통해 평생교육원 운영을 모색할 것”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총장 이상명 박사)와 한국의 청운대학교(총장 이우중 박사)가 업무협약(MOU)을 맺고 상호 협력의 길을 모색하기로 했다. 업무협약식은 지난 11월 9일 청운대학교 대학본부 8층 회의실에서 한국을 방문중인 이상명 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청운대학교는 1995년에 제 11대 국회의원 겸 총남방직 회장이었던 이종성이 ‘총남산업대학교’라는 이름으로 개교한 후, 1998년 7월 1일에 청운대학교로 교명을 바꾸었다.

2021년 기준으로 청운대학교 흥성캠퍼스에 학부 과정 6개 대학이 설립되어 있으며, 각 단과대학에 맞게 학과가 편제되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청운대 인천 캠퍼스가 최근 전 세계 고등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혁신 교육 사례를 평가해 순위 매기는 WURI랭킹(The World's Universities with Real Impact Ranking 2022)평가 결과에서 ‘글로벌 100대 혁신대학’으로 선정됐다. 특히 청운대는 흥성이라는 작은 도시 소재 대학으로 글로벌 100대 혁신대학으로 선정되며 화두가 되고 있다.

이상명 총장은 “업무협약서에 기술된 대로 미주 남가주 지역 신학교육기관의 요람인 본교 미주장신대와 부상하고 있는 지방의 혁신적인 대학교인 청운대 사이의 업무 협약을 통해 두 교육기관은 앞으로 아래 다섯 가지 사항(분야)을 위해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즉 공동 학술연구 프로젝트 수행, 강의와 학술토론회 수행, 평생교육 연구 및 학생교류, 현장학습 지원을 위한 공동협력, 양 기관의

발전 위한 공동 노력을 기울여 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미주장신대는 청운대에 신학과 종교 관련 콘텐츠를 제공

하고, 청운대는 미주장신대에 일반 교육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데 두 교육기관의 공조와 협력을 통해 보다 실제적이고 다양한 내용으로 교육할 평생교육원 운영을 모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사제공: 미주장신대학교>



월드미션대학교 주최 제27회 학생뮤지컬페스티벌에서 출연자와 관계자들이 공연을 마치고 관객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월드미션대학교...오페라 갈라 콘서트

“음악회를 통해 음악 문화예술을 사회에 소개”

월드미션대학교(총장 임성진 박사)는 제27회 학생뮤지컬페스티벌을 오페라 갈라 콘서트로

11월20일(주일) 오후 6시 한길교회에서 가졌다. 임성진 총장은 “이번 학생음악회는 오페라

장르에서 표현되는 오페라 세리아의 가장 대표되는 작곡가 베르디와 그의 뒤를 전수했던 마스카니, 그리고 오페라 부파의 대표되는 작곡가 모짜르트의 중요한 작품들을 한자리에 감상할 수 있게 되었다”며 “오늘 음악회를 통해 음악 문화 예술을 사회에 소개하며 섬길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날 음악회는 최원현, 김지선, 한주연, 차준영, 김강인, 박보미, 김지은 등 본교 재학생들이 지휘자로 나서 오케스트라 연주를 지휘했다. 또한 오케스트라 연주에 맞춰 소프라노 이지은, 김미경, 메조소프라노 정희숙, 엘토 조지영, 테너 오우영, 최원현, 권상욱 등이 출연해 격조높은 연주를 선보였다. <박준호 기자>



2022 밀알봉사상 시상식을 마치고 봉사상을 받은 학생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2022 밀알 대통령 자원봉사상 시상식 개최

“3년 만에 한자리에 모여 34명에게 시상”

남가주밀알선교단(단장 이종희 목사)은 지난 11월 19일(토) 장애인에 대한 ‘사랑의교실’에서 봉사하는 고등학생들에게 미국 대통령이 수여하는 자원봉사상 시상식을 가졌다.

지난 2년 동안은 코로나 방역을 위해 각 브랜치 별로 행사를 진행했지만, 금년에는 3년 만에 밀알의 모든 봉사자들이 ‘새영교회’에 함께 모여 시상식을 개최했다.

사랑의교실(Class AGAPE)은 발달장애 아동, 청소년,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진행되며 수업료 및 기타 부대비용이 전액 무료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 2000년 8월 5일 남가주 OC 지역에서 처음 시작되어 현재 전 세계 밀알선교단이 세워지는 곳이면 어디든지 핵심 사

역으로 자리 잡아 발달장애인들의 재활과 교육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는 중이다. 미주밀알선교단 산하 15개 지단, 3개 지소에서 사랑교실을 통해 수많은 발달장애 참가자들과 교사, 봉사자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아름다운 사랑과 섬김을 나누고 있다. 남가주 지역에서는 현재 OC, LA, 동부 LA, Irvine, Torrance에서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사랑의교실이 열리고 있고, Santa Fe Springs에 위치한 밀알 사무실에서는 성인 장애인들을 위한 사랑의교실이 매주 진행되고 있다.

올해는 금상 8명, 은상 11명, 동상 15명 등 총 34명의 학생들에게 바이트 대통령이 서명한 봉사상이 수여되었다.

<기사제공: 남가주밀알선교단>

성경적음악치유사역세미나

“오늘날 교회의 ‘음악현상’ 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어야”

오렌지카운티교회협의회(회장 심상은 목사)가 주최한 성경적음악치유사역세미나가 11월22일(화) 오후 7시 좋은마음교회(담임 신원규 목사)에서 열렸다. 이날 세미나는 최병철 박사가 강사로 나서 열띤 강의를 인도했다. 세미나는 △음악의 이해와 음악의 영향력 그리고 음악치유에 대한 이해, △성경에 기록된 음악의 기능적 사

용, △성경으로 보는 잘못된 음악사용에 대한 문제 제기, △교회 사역현장에 적용 가능한 성경적 치유음악사역의 실제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최병철 박사는 “교회음악에 그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이런 변화를 성경적이고 바람직한 교회문화로 발전시키기 위해 오늘날 교회의 ‘음악현상’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음악을

알고 음악의 영향력을 이해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성경에서의 음악의 기능적 사용에 대한 이해는 자연스럽게 음악치유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진다. 음악치료가 기능적 음악사용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음악치유에 대한 이해는 교회 환경에서 음악을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의: (918)283-3173 <박준호 기자>

동부교계 기사판

웨스트체스터목사합창단 제2회 정기연주회

코로나19로 지친 교회와 이웃을 위하여 웨스트체스터목사합창단이 "찬양하며 위로하며"라는 주제로 정기연주회를 웨체스터연합장로교회(전주 목사)에서 12월 4일(주일) 오후 6시에 열린다. 웨체스터연합장로교회 주소: 50 Pintard Avenue, New Rochelle, NY 10801

▲문의: (914)310-5490

뉴욕센트럴교회 제12회 헨델의 메시아 공연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알리며 자녀들에게 신앙적 문화적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제12회 헨델의 메시아 라이브 공연을 뉴욕센트럴교회(김재열 목사)에서 12월 11일(주일) 오후 3시에 개최한다.

▲문의: 뉴욕센트럴교회 (516) 387-9940

뉴욕효신장로교회 중고등부 사역자 청빙

뉴욕효신장로교회(김광선 목사)에서 중고등부 Youth Group 사역자(파트타임)를 청빙한다. 자격: 정규신학교 재학 이상, 영어로 소통 가능하며 설교 가능하신 분 제출서류: Resume, Personal Statement

▲문의 및 서류 제출: (718)762-2525 pastorforhyoshin@gmail.com

뉴저지 갈보리교회 유초등부 사역자 청빙

뉴저지 East Brunswick 에 위치한 갈보리 교회에서 유초등부 (1-5학년)를 담당해 주실 파트타임 사역자를 청빙한다. 주중 교회 부설 크리스찬몬테소리 교사로 업무 가능 자격: 정규신학교 재학 이상, 영어로 소통 가능하며 설교 가능하신 분 제출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교회홈페이지: https://calvarykumc.com 교회 주소: 572 Ryders Ln. East Brunswick, NJ 08816

▲문의 및 서류 제출: ckumc572@gmail.com

뉴저지동산교회에서 EM Pastor 청빙

뉴저지동산교회에서 영어예배 사역자를 청빙한다. (Half Time / Part Time) 제출서류: 이력서

▲문의 및 서류 제출: (201)229-1561, info@dongsanchurch.org



뉴욕목사회 정기총회 후 참석자들이 함께 사진 촬영을 했다

뉴욕목사회 제51회기 정기총회

‘회장 김홍석 목사, 부회장 정관호 목사’

뉴욕목사회 제51회기 정기총회가 11월 29일(화) 오전 프라미스교회에서 열렸다. 52명의 회원이 등록한 가운데 진행된 회무에서 임원선출을 통해 회장 김홍석 목사(뉴욕기쁜교회), 부회장 정관호 목사(뉴

욕만나교회)를 선출했다. 또 장규준 목사, 주효식 목사, 하정민 목사 등 3인을 감사로 선출했다. 한편 지난 임시총회 결정에 따라 직전 회장 김진화 목사를 제명했음을 공고했다. (정리: 김재상 기자)



뉴저지연합장로교회 창립50주년 감사예배를 진행하고 있다

뉴저지연합교회 창립 50주년 감사예배

1972년 15명의 교인으로 첫 예배 드린 후 50년의 역사 전해

뉴저지연합교회(담임 고한승 목사)는 창립 50주년 감사예배를 11월 20일 주일 오후 5시에 드렸다. 담임목사는 "뉴저지연합교회가 1972년에 15명의 교인으로 첫 예배를 드렸으며 현재까지 창립 멤버 4명(노상석 장로, 조후로리 권사, 조앤 권사, 조에스터 집사)이 현재까지 출석하고 있다"고 전했으며 뉴저지연합교회 출신 목회자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고 목사는 "1985년부터 1993년까지를 성장과 부흥의 기간으로 가졌으며 2001년에 일글우드 새성전으로 입당했고, 2009년에

증·개축하여 입당예배를 드렸"고 교회 역사를 설명했다. 본 감사예배에서 백승규 장로가 대표기도를 했으며, 윌리엄 갈리사가 설교했다. 축사는 뉴저지교협 회장 박근재 목사, 나구용 원로목사, 코너스톤교회 조수아 정 목사가 했으며 4대 담임 안성훈 목사의 축도로 창립 50주년 감사예배를 마쳤다. 뉴저지연합교회는 올해 50주년을 맞아 특별선교사로 이윤영 선교사를 말레이시아로 파송했으며, 10월에는 특별교인총회에서 교단변경을 만장일치로 결정한 바 있다. (정리: 김재상 기자)



KWMC 제35차 전국연차총회 개최예배를 마친 후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KWMC 제35차 전국연차총회 개최

2년마다대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최종 결의, 다음대회는 2024년!

KWMC(기독교한인세계선교협의회) 2022년 제35차 전국 연차총회가 11월 28일(월)부터 30일(수)까지 퀸즈장로교회(김성국 목사), 라과디아 플라자 호텔에서 개최됐다.

사무총장 조용중 선교사는 "2022년 제9차 한인세계선교대회를 마치게 됐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온 인류의 소망'을 기치로 내세워 새로운 시대, 새로운 도전에 걸맞는 KWMC 선교운동의 방향을 논의하는 총회가 됐다"고 전했다.

첫째 날, 퀸즈장로교회에서 조용중 사무총장의 사회로 열린 개최예배는 기도 흥인석 공동의장, 특별찬양 글로리아 싱어즈, 설교 김대영 공동의장, 성찬식 고석희 상임의장, 제석호 공동의장의 축도로 진행됐다. 김대영 공동의장은 창세기 1:26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많은 일들을 해 나가고자 할 때는 단순하게 생각하고 단순하게 결정하고 단순하게 행동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크신 일을 이루실 것이라"며 "이번 KWMC 연차총회에

서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단순하게 생각하고 단순하게 결정하고 나아가 갈 때 주께서도 단순하게 일해 주시리라 믿는다"고 설교했다. 연차총회는 이승중 대표의장 사회로 기도 송제임스 공동의장, 선교적교회 사례보고 지용주 공동의장, 선교사역 보고 박용석, 김선욱 아이티 선교사, 우크라이나 난민지원 영상 순서로 보고 하였고 백운영 공동의장의 기도회로 마쳤다.

둘째 날, 대표의장의 사회로 진행된 회의를 통해 기존에 4년마다 열리던 대회를 2년마다 열리는 것으로 변경하여 다음 KWMC 선교대회를 2024년에 개최하는 것과 대표의장 및 사무총장의 이취임 없이 기존 체제를 유지하는 것으로 최종 결의했으며 이민우 선교사가 "중국 선교의 오늘과 내일"이라는 주제로 선교도전 및 사역발표의 시간을 가졌다. 셋째 날, 폐회에 배에서 대표의장의 설교 후 나광삼 공동의장의 축도로 연차총회의 모든 순서를 마쳤다. (김재상 기자)



PCUSA 청년연합수련회 후 다함께 기념촬영을 했다

미국장로교(PCUSA) 전국 한인청년연합수련회

“예수님을 통한 자아 발견”을 주제로 다채로운 프로그램 진행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리스도 제자 양성의 일환으로 제5회 미국장로교 한인총회(NCKPC) 전국 한인청년 연합수련회가 시카고에 위치한 한미장로교회(고훈 목사)에서 개최됐다.

미국 추수감사절 기간인 지난 11월 24일부터 2박 3일간 진행된 이번 수련회는 "예수님을 통한 자아 발견(회개)"을 주제로, "깊은 데로(누가복음 5:1-11)"를 소주제로 열렸다.

개회 예배를 통해 노재왕 목사(샬페인어바나한인교회)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가 각자에게 넘치기를 소망한다"면서 "미래의 내가 현재의 나에게 고마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삶을 통한 예배를 드리자"라고 설교했다. 주 강사로 나선 김현명 목사(부산 남천교회/공감 미니스트리 대표)는 두 번의 저녁 집회를 통해 "깊은 데로, 이웃 사랑"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선포했다. 김현명 목사는 "삶에 직면한 문제만을 해결하는 신앙이 아니라, 더 깊은 곳에 있는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전제한 후, "하나님이 죄인 된 우리를 자신의 이웃으로 사랑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듯이 우리 또한 나의 이웃들을 사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찬양간증집회를 통해 찬양

사역자 신은영 전도사는 "살아줘서 고마워요", "항상 기뻐해" 등의 찬양과 함께 "삶을 통해 인도해 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평생 기억하며 찬양하자"고 도전했다.

"신앙과 삶"을 주제로 세미나 강사로 나선 김윤환 집사(퍼듀대학교 교수, 퍼듀 한인장로교회)는 "청년 시절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까지 왔다"면서 "항상 하나님께 최우선 순위를 두고 학업과 연구에 몰두하다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명구 목사(먼시 한인장로교회)는 폐회예배와 성찬식을 통해 "수련회를 통해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일상의 삶 속에서 승리하자"면서 "세상에 감동의 메시지를 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믿음의 인생이 되자"고 강조했다.

그간 미국장로교(PCUSA)에 속한 한인 청년연합 수련회는 매년 추수감사절을 맞아 개최되었는데, 앞으로 미국장로교에 속한 한인교회들의 참여는 물론 교단을 넘어서서 많은 청년들의 참여가 기대되며, 북미 지역의 명품 청년 연합수련회로 자리매김할 계획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정리: 김재상 기자)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제36회 장학금을 위한 찬양축제

“오직 하나님께 영광(Soli Deo Gloria)”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학장 김성국 목사) 제36회 장학금을 위한 찬양축제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Soli Deo Gloria)"이라는 주제로 11월 16일(수) 저녁 퀸즈장로교회에서 열렸다.

찬양축제는 인도 정기태 목사(학장), 기도 임지홍 학우(학생회장), 김해련 학우(부회장)의 순서로 진행됐다. 학장 김성국 목사는 "마음으로(에베소서 5:19)"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우리는 마음으로 특히 깨끗한 마음으로 찬양해야 한다. 입술로 하는 찬양도 귀하지만 하나님은 마음으로 하는 찬양을 받고 싶어 하신다"라고 전했다.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합창단은 윤원상 교수의 지휘와 송소영 집사의 반주로 진행 됐으며 총 23명의 합창단원들이 말씀 전과 후에 나와서 오직 하나님께 영

광(Soli Deo Gloria), '주 나의 이름 부를 때', '오라', '그날까지 주와 동행', '주님 오실 하늘 바라보며', '행복', '축복' 등 총 7곡을 찬양했다. 학장 정기태 목사는 광고를 통해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 믿고 열심히 찬양제를 준비해온 학생들을 격려하고, 아름다운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줄 믿는다고 전했으며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기 위해 찬양축제를 후원한 많은 교회와 동문들에게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 모든 찬양 축제의 순서를 학장 김성국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는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총회에 소속된 개혁주의 신학교로서 1987년부터 미국 내 많은 한인 목회자들을 배출해 온 바 있다. (김재상 기자)



찬양축제 후 신학교 담당자들과 합창단이 기념촬영을 했다



정기총회의 모든 순서를 마친 후 참석자들이 함께 사진 촬영을 했다

제28회 뉴욕교협청소년센터 정기총회

현대표 최호섭 목사, 이사장 정인국 장로 연임 통과

제28회 뉴욕교협청소년센터(AYC) 정기총회가 11월 16일(수) 오전 10시부터 교협 건물 내 뉴욕주심교회에서 열렸다. 1부 예배는 인도 최호섭 목사(뉴욕교협청소년센터 대표), 기도 안재현 목사(뉴욕총신교회), 성경봉독 백달영 장로(이사), 설교 김정호 목사(후러싱제일교회), 축도 김홍석 목사(뉴욕기쁜교회)의 순서로 진행됐다. 김정호 목사는 "미래를 여는 사람들(사도행전 2:17)"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2부 회무 순서는 정인국 장로(이사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송윤섭 장로(전 이사장)가 개회 기도를 했고, 주영광 목사(서기)가 회원점명을 진행했고, 본 정기총회에서 총 이사 21명 중 13명이 참석했음을 확인했다. 이사장의 개회선언과 회신채택, 서기의 전 회의록 낭독이 이어졌다. 감사 김영철 목사가 감사보고를 했으며, 사무총장 김준현 목사가 회계보고를 했다. 이어 사무총장 김준현 목사가 청소년센터의 청소년 사역 프로그램에 대해 보고 했다. 청소년센터 프로그램 중 미디어 사역은 설교, 찬양, 인터뷰 등 영상 콘텐츠를 매달 제작하여 유튜브에 업로드 해왔음을 전했다, 학원 사역은 11월부터 프랜시스루이스 고등학교의 학원 사역을

늘기쁜교회에서 시작했다고 보고했다. 학원 사역의 내용은 상담, 멘토링, 말씀 사역 등을 포함하며 김 사무총장은 3개 학교를 개척하고 사역자를 파송하는 등 학원사역을 3년 정도 하다 뉴욕시에 펀드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청소년센터는 지난 회기 동안 1회성 행사로 ΔYWMC와 공동으로 6개 교회가 참가한 아시아 협오관련 미움없는 세상만들기 프로젝트 ΔNYPD 박희진 형사나 약물관련 범죄예방 세미나 Δ이민자보호교회 등 여러 단체들과 연합하여 제시 잭슨 목사를 초청하여 아시아 협오관련 모임, 뉴욕 청소년 할렐루야대회를 열었으며 12월 4일에는 청소년들이 중심이 된 음악회가 친구교회에서 열린다고 보고했다.

또한, 2023년 예산안과 임원 선거에서 현대표 최호섭 목사 이사장 정인국 장로 연임을 동의하여 통과시켰다. 한편 신안건토의 가운데 뉴욕교협이 할렐루야 대회를 위해 매년 1만 달러를 지원해 온 데 비해 올해에는 5천 달러만을 지원한 것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황영송 목사(전 대표, 뉴욕수정교회)의 폐회 기도도 모든 순서를 마쳤다. (김재상 기자)



아주사퍼시픽신학교 '생각하는 그리스도인' 세미나가 열렸다

아주사퍼시픽신학교 '생각하는 그리스도인' 세미나

“기독교인들에게 정직과 성실성은 가장 중요한 덕목”

아주사퍼시픽대학교(총장 아담 모리스 박사) 신학대학원 한인 프로그램(디렉터 변명혜 박사)은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로 지난 11월17일(목) 오후 7시 온라인캠퍼스에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민중기 교수, 다니엘 뉴먼 교수, 김한요 교수, 백성열 교수가 패널로 참가해 세미나를 인도했다. 변명혜 교수 사회로 시작된 이날 세미나는 '정직한 그리스도인(Christian Integrity)'이라는 주제로 첫 번째 시간을 가졌다. 세미나의 첫 번째 질문은 '정직'으로 변명혜 교수가 질문을 하고 패널들이 질문에 대한 자신들의 생각을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스도인인가? 그리고 그 증거와 확신은?'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우리가 하나님자녀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한다면 과연 내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인 것을 무엇으로 나타낼 수 있는가? 정직의 근본은 내안에 성령께서 계시다는 것을 무슨 증거로 보여줄 수 있는지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 정직한 그리스도인의 모델(어떻게 정직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나?)에 대해서 뉴먼 교수는 "정직은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지켜질 수 있다. 반면 연합이 없으면 정직한 삶을 살 수 없다"고 말했다. 민중기 교수는 "정직성을 생각할 때 우리가 사는 가주는 힘든 곳이다. 낙태할 수 있는 권리를 대법원에서 허용하지 않기로 했는데 가주는 여성의 권리라며 허용했다. LGBTQ+도 마찬가지로"라며 "이러한 혼돈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와 법칙을 벗어났기 때문"이라 말했다. 김한요 교수는 "정직을 우리 삶속에서 하려면 나의 나뭇잎을 확인하는 방법 그것이 확인되면 거짓말해서 다른 걸 얻을 이유도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하는 성도가 될 수 있다"고 말했으며 백성열 교수는 "그리스도인의 정직의 출발은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지 깨달아야 하는 것"이라며 "내가 누구지 아는 것은 힘들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다. 그리스도의 정직은 어떤 단어로도 표현할 수 없는 흉내 낼 수 없는 성령으로 말미암을 때만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최고의 의무가 무엇인지 깊이 사고해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분별하고 세운다면 그것에 투자할 것"이라 설명했다.

(박준호 기자)



좋은마을교회 거룩한 한 몸 예배를 마치고 신원규 목사와 민승기 목사 부부가 기념촬영하고 있다

좋은마을교회 거룩한 한 몸 예배 드려

두 교회의 아름다운 연합, 민승기목사 MKW 선교사로 파송

좋은마을교회(담임 신원규 목사) '거룩한 한 몸 예배'가 20일(주일) 오후 2시30분에 열렸다. 찬양팀의 찬양인도와 신원규 목사 인도로 시작된 예배는 김현용 목사가 기도했으며 좋은마을교회 여성중창팀이 특송했다. 신원규 목사가 '오늘 하루는 새날입니다(사 43:18-21)'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신원규 목사는 "거룩한 한 몸 예배를 드리는 하루를 어떻게 맞이해야 할 것인가? 오늘이 새날이 되어야 한다"며 "성경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고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라고 기록되었듯이 성도들은 하루를 맞이할 때 새로운 피조물로 맞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갈보리새 생명교회와 좋은마을교회가 연합했다. 거룩한 한 몸 속에 추수 감사절 감사예배를 드리고, 28년간 주를 위해 수고한 목회자의 은퇴와 시골곳곳에 흩어져 있는

어린이들을 섬기기위한 선교사 파송이 조화롭게 이루어져 한 몸이 된다면 새날이 된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설교에 이어 민승기 목사의 28년 목회를 마무리 하는 은퇴식과 선교사 파송식을 가졌다. 민승기 목사는 "목회자의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평생토록 복음사역에 헌신하신 바울처럼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것"이라며 "선교사 직분을 받으니 엄청난 일을 어떻게 감당해 나갈지 걱정이 앞서지만 주님께 순종하며 충성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은퇴 및 선교사 임명식은 임광순 장로가 특송했으며 엘빙스톤 목사(요바라다 제일교회), 알렌 목사(세인트폴 루터교회), 심상은 목사(갈보리선교회)가 축사했다. 이날 예배는 주영욱 목사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충현선교교회 제9기 세계관학교

“어릴 적부터 생각, 감정, 행동에 초점을 두고 교육해야”

충현선교교회(담임 민중기 목사) 제9기 세계관학교가 지난 10월18일 시작되어 11월29일까지 매주 화요일 저녁 7시에 열렸다. 지난 11월15일(화)에는 '좋은 성품과 세계관-미디어 & 메타버스와 맞서기'라는 주제로 강의가 열렸으며 이영숙 박사(좋은나무성품학교 대표)가 강사로 나서 열띤 강의를 인도했다. 이영숙 박사는 "세계관은 자신이 사는 세상에 대한 생각, 감정, 그리고 행동이다. 성품은 한 사람의 생각, 감정, 행동의 표현"이라며 "이 둘의 공통점은 세상을 바라보는 생각, 감정, 행동이다. 따라서 어릴 적부터 생각, 감정, 행동에 초점을 두고 교육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박사는 "세상의 세계관과 하나님 나라의 차이는 완전히 크다. 세상의 세계관은 도둑과 같아서 우리 영혼을 훔쳐서 하나님 앞으로 가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멸망시키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사는 아이들에게 주당 1시간 정도 교회에서 들려지는 하나님 이야기는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게 하기가 어렵다"며 "신앙인으로 자라나게 하는데 어릴수록 더 신앙교육이 효과적이며 영아가 때 가르친 기독교교육이 기초 신앙이 된다. 그러므로 유아기 때는 핸드폰이 아닌 책을 쥐여준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아이들에게 미디어는 미디어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흘려 보내기 위한 통로가 되기 위해 좋은나무성품학교에서 미디어로 콘텐츠를 만들었으며 하나님의 세계관을 담은 많은 콘텐츠가 나와야 한다. 4차산업혁명으로 다가온 발전된 과학기술 속에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요소들이 많다. 미디어도 그렇고 최근 우리결교로 다가온 메타버스로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요소들이 많다"며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부서 버리는 도전 속에 하나님의 선한 세상으로 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준호 기자)



충현선교교회 제9기 세계관학교에서 이영숙 박사가 강의하고 있다

가나안교회 창립 50주년 감사찬양예배

“이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자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자”

가나안교회(담임 임동운 목사) 창립 50주년 감사찬양예배가 20일(주일) 오후 1시에 열렸다. 임동운 목사 인도로 시작된 1부 예배는 심세형 장로가 기도했으며 노영주 목사가 특별 찬양했다. 이어 본 교회 창립담임 김대순 목사가 '창립 50주년(요 3:15-17)'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김대순 목사는 "50년 세월이 긴 세월이지만 돌아보면 잠깐 지나간 세월처럼 느껴진다. 지난 50년을 돌아볼 때 교회건물 시설은 그대로 있지만 많은 교인들이 세상을 떠났다. 앞으로 50년을 생각해볼 때 이곳에 계신 분들 역시 많이 떠나갈 것"이라며 "지나간 세월 돌아보면 모든 것이 감사하다. 인간이 이 세상에 와서 나그네로 살고 떠나는데 성공한 자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에 간 자이다. 인생은 연습 반복 없는 외길이다. 교회의 정

답은 녹 19:19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 받으려 하는 것이다. 가나안교회가 앞으로 이일에 충성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는 자들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설교에 이어 가나안 50년 특별영상이 소개되었다. 2부 찬양음악회는 가나안성가대가 '영화롭도다', '모퉁이 돌',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예수 내 구주' 등을 불렀으며 카라여성중창단, 카리스 남성중창단, 소프라노 정명은, 테너 이민중 목사가 무대에 올라 아름다운 찬양을 선사했다. 이날 예배는 김대순 목사 축도로 마쳤다. 한편 이날 오전 10시에 열린 창립 50주년 주일 예배는 박희민 목사(새생명선교회 대표)가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공동체(잠 25:1)'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박준호 기자)



한미특수교육센터 LA센터오픈하우스에서 참석자들이 센터 재개를 축하하고 있다

한미특수교육센터 LA센터 재개

한미특수교육센터(소장 로사장) 오픈하우스가 14일(월) 오전 11시에 열렸다. 로사장 소장은 "팬데믹으로 인해 LA 사무실을 닫았었다"며 "LA사무실은 LA지역의 발달장애 가족들에게 도움을 주는 공간이었다. 그동안은 줌으로 LA지역 발달장애 가족들에게 도움을 주었다"고 말했다. 또한 장 소장은 "이번에 LA 케어 커뮤니티센터 리소스 센터(1233 S. Western Ave., LA)에서 무료로 공간을

제공해주어 발달장애 서비스를 재개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한다. LA 케어에 장애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자원이 많다"고 말했다. LA 오픈하우스는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5세 미만 아동을 위한 무료 영유아 발달선별검사를 제공한다. 이를 위한 예약 신청은 KASEC 웹사이트(KASECca.org)에서 할 수 있다.

(박준호 기자)

서부교계 게시판

나성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 초청 LA축복성회

나성순복음교회(담임 진유철 목사)는 팬데믹으로 인해 침체된 남가주 한인교계에 새로운 부흥을 기대하며 이영훈 목사(여의도순복음교회 담임)초청, 'LA축복성회'를 12월4일(주일) 오후 6시에 갖는다. 또한 12월 5일 오후 5시 목사 안수식과 7시 20분 제 47차 실행위원회가 각각 열릴 예정이다.

▲ 문의: (323)913-4499/lafgcusa@yahoo.com

세기연 총회 및 제 8회 독후감 공모전 시상식

세계한인기독언론협회(이하 세기연/ 회장 이영선 목사) 총회 및 제 8회 독후감 공모전 시상식이 8일(목) 오전 10시 30분 미주복음방송(2641 W. La Palma Ave. Anaheim, CA 92801)에서 개최된다. 독후감 수상자는 △최우수상-이윤진(AMC 온누리교회 LA) △우수상-한익승(뉴저지 파라무스 참빛교회) △장려상-김진해(브라질), 손소영(보스턴 은혜한국교회), 문지혜(은혜한인교회 LA), 실비아(멕시코). 시상식을 마친 후 세기연 총회를 개최한다.

▲ 문의: (213)663-4340

우크라이나 난민구호를 위한 성탄 평화콘서트

국제기아대책은 우크라이나 난민구호를 위한 성탄 평화콘서트를 12월9일(금)부터 18일(주일)까지 개최한다. 평화콘서트는 겨울나기 이불 지원(FD, 방대식 선교사, Seed 파송, KAFHI 협력선교사)와 수북지역 긴급구호식량(FD, 김민호 선교사, 기아대책 파송선교사)를 지원하기 위해 열리며 소릴레 지명현 목사 외 CCM찬양사역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다. 일정은 △12월 9일(금) 저녁 7시 콜럼버스 초교(배종현 목사), △10일(토) 저녁 7시 시카고 헬로교회(심정섭 목사), △11일(주일) 오전 8시, 11시, 샬럿연합감리교회(한상훈 목사), △11일(주일) 오후 3시, 집회 장소 섭외중(남부연합감리교회, 김호근 목사), △14일(수) 수요예배 (서북부 지역 섭외중, 포틀랜드), △16일(금) 오후 7시 산호세 온누리교회(조명재 목사), △17일(토) 미정, 산호세 지역 섭외중(임마누엘, 북가주 새누리, 뉴비전 중), △18일(주일) 미정, 산호세 지역 섭외중(임마누엘, 북가주 새누리, 뉴비전 중)이다.

▲ 문의: (847)296-4555

베데스다대학교 김관호 총장 취임식

베데스다대학교는 김관호 총장 취임식을 12월5일(월) 오전 10시30분에 갖는다.

▲ 문의: (714)683-1212

은혜한인교회, 월드컵 응원전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는 카타르 월드컵 예선 3차전(한국:포르투갈)이 열리는 12월2일(금) 오전 6시30분, 비전센터 친교실을 오픈하고 LED 스크린으로 방영하며 함께 응원전을 실시한다. 당일 아침 커피와 도넛이 준비된다.

▲ 문의: 562-972-9595(김정기 장로)

충현선교교회 원로목사 추대식 및 담임목사 위임식

충현선교교회는 민중기 목사 원로목사 추대식 및 국윤권 목사 담임목사 위임식이 12월4일(주일) 오후 3시에 갖는다.

▲ 문의: (818)549-9191

소망소사이어티 '2022 소망 GALA'

소망 소사이어티(이사장 유분자)가 구술자서전 '바람꽃' 출판 기념식과 함께 열리는 이번 갈라가 오는 12월 3일(토) 오후 5시 30분 세리토스의 퍼포밍아트센터에서 열린다.

▲ 문의: (562)977-4580

소진영 마커스 워십인도자 초청 찬양간증집회

원하트미니스트리(대표 피터박 목사)는 소진영 마커스 워십인도자 초청 찬양간증집회를 12월2일(금) 오후 7시45분 ANC온누리교회(담임 김태형 목사)와 3일(토) 오후 7시 남가주동신교회(담임 백정우 목사)에서 열린다.

▲ 문의: (818)834-7000, (714)680-9556, (714)244-8828



아이원 엔터테인먼트 추수감사 뮤직 페스티벌에서 참석자들이 찬양하고 있다

아이원 엔터테인먼트 추수감사 뮤직 페스티벌

찬양을 통해 힘이 있는 은혜의 시간대

아이원 엔터테인먼트(대표 임윤경)가 주최하는 추수감사 뮤직페스티벌이 19일(토) 오후 7시 동양선교교회(담임 김지훈 목사)에서 열렸다. 김지훈 목사는 "오늘 모인 모든 분들이 귀한 찬양과 음악을 통해 힘이 있는 은혜의 시간을 맞이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번 페스티벌은 "나 중심" "이회성인생" "개인의 행복추구"라는 가치관이 트렌드로 여겨지며, 해체되어가는 현대의 가족의 의미와, 코비드로 인해 자리를 잃었던 공연문화의 회복과 발전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공연은 김승덕(아베마리아, 이를 없는 새, 우리사랑들 수많은 히트곡을 보유한 심어송 라이더/현 새하늘교회 담임목사),

박선영 (뮤지컬, 재즈, 팝싱어/ KBS "울 밀에선 봉선화"로 백예술대상 아역상 수상), Trygg & Zeal (미 주류커뮤니티 무대서 활발히 활동중인 CCM 가수), 드림밴드가 출연하여 즐겁고 은혜로운 음악을 선사했다. 이날 사회를 맡은 렌디김 형제는 "음악인으로 다인종과 세대를 초월한 가족들이 함께 하는 공연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하고있는데 마침 아이원 엔터테인먼트에서 추수 감사절을 맞이하여 이러한 공연을 열게 되어서 감사했다"며 "앞으로 다인종들이 함께하는 좋은 공연들이 많이 열렸으면 한다"

(박준호 기자)



코로나 팬데믹 때 교회 못 간 건 누구 탓일까

‘대면예배 전면 금지’ 종교의 자유 침해 여부 판결 엇갈려

‘대면예배 전면 금지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가.’

이에 대한 법원 판결이 엇갈리면서 교계 안팎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일부 법원에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방역당국의 대면예배 전면금지 조치가 적법했다고 판시한 반면 대면예배 금지는 종교의 자유 침해라는 판결도 나왔다.

교계는 법원의 판단과 흐름에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종교 및 신앙 활동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돼 있는 문제이면서 판례에 따라 당국과 교계간의 향후 대응 방향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29일 대구지방법원 행정 2부(신현석 부장판사)에 따르면 전날 대구지법은 경북지역 26개 기독교 개신교회가 경북도지사를 상대로 낸 교회의 대면예배 금지 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대구지법 재판부는 “대면예배를 하는 자유는 ‘종교행위의 자유’와 ‘종교 집회·결사의 자유’라며 “이는 신앙의 자유와 달리 절대적 자유가 아

니다.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을 위해 제한할 수 있는 자유”라고 판시했다.

앞서 대전지법도 지난 9월 새로남교회 등 대면예배 금지 조치가 반발한 대전 교회 10곳이 제기한 행정소송을 기각한 바 있다. 재판부는 “국민의 생명권 등을 보호하기 위해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라면 행정청은 관련 법령에 근거해 (대면예배를)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대면예배 금지 조치가 위법이란 판결도 잇따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1부(부장판사 강우찬)는 지난 7월 서울 영광교회(전두호 목사) 등 ‘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예자연)’ 소속 교회와 목회자들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대면예배 금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당시 “이 사건 처분은 종교의 자유에 대한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비례·평등 원칙에도 반한다”고 짚었다. ‘비례 원칙’은 기본권을 최소한의 선에서 제한해야

한다는 헌법상의 원칙이고 ‘평등 원칙’은 공평하게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헌법상 원칙이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결혼·장례식 등과 같이 종교 시설도 참석 인원에 제한을 뒤서 밀집도를 완화하는 방법이 충분히 가능했을 것”이라고 짚었다. 법원은 또 “정신 건강을 지원하려는 교회가 생산 필수 시설에 비해 중요도가 덜하다고 볼 수 없다”며 교회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이에 서울시는 항소한 상태다.

대구·대전지법이 최근 방역당국의 대면예배 금지 조치를 적법한 조치였다고 판시한 상황에서 서울시 역시 반전을 거머쥘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법무법인 로고스 심동섭 변호사는 대면예배 금지 조치를 둘러싼 법원의 엇갈린 판단에도 교계의 최종 승소가 가능해 보인다고 밝혔다.

대면예배 금지 취소 소송에서 교계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심 변호사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대면예배를 드리는 자유는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을 위해 제한할 수 있는 자유라는 대구지법 판결에 동의한다”면서도 “그렇다고 방역 당국의 대면예배 금지 조치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은 건 아니다. 비례·평등 원칙에도 반하기 때문”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그는 “코로나 확산 초기 방역 당국이 비대면 예배만 허가한 건 비례 원칙 위반이고, 교회에만 제재를 가했던 건 평등 원칙 위반”이라며 “소송에 나선 교회만이 아닌 모든 교회가 부당한 방역 조치의 피해자다. 빼앗긴 권리를 함께 복원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교행사, 전적으로 장병 개인의 선택... 강제 못해

“육군훈련소 종교행사 참석 강제는 위헌”, 군 선교 관계자 ‘가우뚱’

“특별한 간식이나 포상 등이 없는 날엔 (종교행사에) 같이 가자고 말하기가 꺼려진다.”(군종병 출신 김모씨)

육군훈련소 종교행사에 훈련병을 강제로 참석시키는 건 종교의 자유 침해라는 최근 헌법재판소 결정은 두고 전현직 군종 관계자들은 가우뚱하는 분위기다.

전·현직 육군 군종 관계자들은 28일 “현재 이뤄지고 있는 종교행사가 강제적이라는 주장이 사실과 괴리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군종 장교로 복무하다 전역한 이모씨는 “군 복무기간을 통틀어 종교행사를 강제했다는 경우는 들어본 적조차 없다”며 “헌역복무 당시 종교행사는 전적으로 장병 개인

의 선택에 따라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육군 역시 지난 24일 “육군훈련소는 기초군사훈련에 입소한 모든 인원에 대한 종교행사는 개인의 희망에 의해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종교행사 참석을 강제할 수 없는 장치는 군 부대 내에 이미 마련돼 있다. 부당한 지시를 하면 누구든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어서다. 병 상호 간에도 마찬가지로 병사끼리 종교행사 참석 자체를 권하기 어려운 분위기도 감지된다. 군종병 출신 김모씨는 “종교행사에 같이 가자고 했다가 ‘마편(마음의 편지)’에 이름이 오를 수도 있다”고 전했다. 징계 대상으로 찍힐 수 있다는 얘기다.

오랜 기간 군선교 현장을 누볐던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 군 선교위원장인 고석환 목사는 “과거에는 군대 내에서 종교 활동의 중요성이 폭넓게 인정돼 ‘1인 1종교 갖기 운동’이나 종교활동 강요 등이 자연스레 행해졌고 장병들의 수용성도 높았다”며 “하지만 지금은 자율·인권을 강조하는 군 문화와 더불어 ‘무종교도 종교’라는 인식이 퍼져 종교활동 강요는 사라졌다”고 말했다.

한편에서는 이번 헌재 결정이 군대 내 종교의 자유에 대한 재확인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강원도에서 군종장교로 복무 중인 윤모씨는 “모든 부대에 대해 알 수 없으나 이미 대다수 부대가 개인의 선택에 따른 자율참석 방식으로 종교활동을 시행하고 있다”며 “이번 헌재 판결로 큰 변화가 있지는 않을 것 같다”고 내다봤다.

지난 24일 헌재 결정에 대한 이견도 있다. 육군훈련소 분대장이 (헌법소원) 청구인들에게 했던 종교행사 참석 권면이 사실상 강제에 이르는 효과를 발휘했는지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홍락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는 “헌재가 결정문에 기재한 내용만 보면 분대장의 말이 단순 권유였는지 강제였는지 그 여부가 불명확하다”며 “좀 더 명확한 심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된장 생산설비 지원하고 장터 열어 판로 확보까지

도농교회 ‘구수한 상생’, 거창 임불교회·수서교회의 동행

경남 거창 임불교회(이현용 목사)는 35년간 지역주민들과 동고동락해 온 작은 교회다. 특히 마을주민이 재배한 콩을 시

가보다 비싸게 구매해 된장을 만들어 파는 교회로 유명했다. 2014년 3대 목사로 부임한 이현용(61) 목사도 곽유선(61) 사

모와 함께 교회 전통을 고스란히 계승해 성도들과 질 좋은 재래식 된장을 만들고 그 수익금을 교회 운영비에 보태며 목회소명을 이어갔다.

시간이 흐르면서 임불교회도 농어촌교회가 직면한 어려움을 피할 수 없었다. 바로 고령화의 질곡이다. 이 목사 부임 당시 성도 수는 40명이 넘었고 교회학교도 있었지만 지금은 90대 어르신 7-8명과 지적장애인 10여명만 남았다. 이 목사는 28일 “된장을 만드는 일은 손이 많이 가고 체력이 필요한 작업이라 나이 든 어르신이 하기엔 버겁다. 나도 10년 넘게 이 일을 하다 보니 몸 여러 군데가 고장이 났다”며 “몇 년 전에는 주민들의 콩을 구매할 정도의 돈이 없어서 된장 생산을 멈췄던 적도 있었다”고 토로했다.

임불교회의 사정을 듣고 서울 강남구 수서교회(황명환 목사)가 손을 내밀었다. ‘자립대상교회 지원 프로젝트’에 임불교회를 선정하고 3년에 걸쳐 1억원을 지원한 것이다. 임불교회는 지난해 수서교회의 지원금으로 생산 시설을 기계화하면서 한결 수월하게 된장을 만들 수 있게 됐다.

된장을 만드는 데는 1년의 시간과 정성이 필요하다. 지난해 12월 임불교회 성도들과 인근 지역 목회자들이 교회에 모였다. 전날 깨끗이 씻어 24시간 이상 불려놓은 콩을 삶고 빻은 뒤 적당한 크기로 잘라 숙성실에 매달았다. 올해 2월 따뜻한 온실에서 숙성된 메주를 물, 천일염과 함께 항아리에 채웠다. 두 달 후엔 간장을 분리하고 메주는 다시 큰 일교차 속에 긴 숙성을 거쳤다. 그 결과 영양이 듬뿍 담긴 햇된장이 이달 초 출하됐다.

이 목사는 “전에는 추운 겨울 교회 앞마당에 가마솥을 걸어 놓고 손이 곱아가며 메주를 만들었는데 수서교회 지원금으로 콩 세척기, 콩을 삶는 증숙기, 메주 모양을 만드는 성형기 등을 구매했고 메주 숙성방을 증축했다”며 “그 덕에 따뜻한 곳에서 힘을 덜 들이고 된장을 만들 수 있었다.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다.



다문화가정 아이, 아나운서처럼 책 읽게 된 비법

코로나 기간 매일 전화로 성경 읽어준 교양예배에셀교회

“어려운 가운데서 다문화 가정을 잘 섬기는 이웃 교회가 있어.” 경기도 고양에서 목회하는 한 목사의 소개로 27일 주일 예배에셀교회(순범서 목사)를 찾았다. 상가 1층에 있는 예배당은 환하고 아담했다. 순범서(54) 목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잠 27:1-2)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우리는 언제 어떻게 갈지 모르는 인생”이라며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하자”고 했다.

순목사는 예화를 들 때 영어를 간혹 사용했다. 성도들은 “아멘”으로 화답하기도 하고 재치있는 표현에 웃음을 터트리기도 했다. 예배 후 필리핀에서 온 여성 성도 3명과 마주했다.

레이 마칼란다(46)씨는 “필리핀에서 가톨릭 신자였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성당을 찾았는데 아이들이 가톨릭 미사에서 하는 말을 너무 어려워 해 다니기 힘들었다”고 했다.

마칼란다씨는 우연히 한 수업에서 손 목사의 아내인 하세가와 아키코(54) 사모를 만났다. 그는 “딸과 아들이 있는데 교회에서 한국어뿐 아니라 성경과 수학 등을 배운다”면서 “아이들이 영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자라는 것 같다”고 감사를 표했다. 8번째 예배에셀교회를 다니는 그는 필리핀공동체에서 만난 다른 자매 리카 미스랑(33)씨도 데려왔다.

미스랑씨는 “(나는) 목사님

말씀이 귀에 속속 잘 들어와서 좋다. 우리를 위해 영어도 가끔 사용하시고 성경을 쉽게 풀어 주신다. 무엇보다 손 목사님 부부가 우리처럼 다문화가정이라 우리 상황을 잘 이해하고 보살펴 주신다”고 했다. 손 목사 부부도 이들과처럼 다문화가정이다. 손 목사는 1992년 케냐나 유학 시절 일본인 아내를 만나 96년 결혼, 딸 인애(23)씨와 아들 명철(19)군을 두고 있다.

미스랑씨는 초등학교 2학년 키운다. 지난 5월부터 자녀 2명과 함께 출석 중인 아이 토넷(34)씨는 “어떤 교회에 가면 사람도 많고 음악 소리가 커서 기도하기도 힘든 경우가 있는데 우리 교회는 차분해서 늘 마음이 편하다. 요즘엔 내가 필리핀 친구들한테 우리 교회를 소개한다”며 웃었다. 다문화 가정 엄마들이 공통적으로 고마워하는 것은 자녀교육이었다.

교회는 코로나 기간에 교회학교 아이들에게 전화로 성경을 읽어줬다. 교회에서 오프라인 예배를 드리기 어려웠을 때다. 기독교대한삼리회 지방회에서 교회학교 대상 성경 읽음 대회가 있었다. 아동부 예배를 담당했던 김경자(60) 권사는 “하세가와 사모님 권유로 대회 후에도 아이들과 매일 조금씩 잠언을 읽었다”고 했다.



12월 둘째 주일은 성서주일... “지구촌 곳곳에 성경을”

성서공회,우크라이에 성경 38만부 보내

대한성서공회(사장 권의현)는 12월 둘째 주일인 다음 달 11일을 성서주일(Bible Sunday)로 지킨다고 밝혔다.

대한성서공회는 “성서주일은 북한이 배척받던 우리나라에 서구 교회의 도움으로 한글 성경을 번역·보급받았던 일을 기억하고, 성경을 처음 받았던 그 감격을 되새겨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다짐하는 주일”이라고 했다. 특히 “아직도 북을 알지 못하거나 성경을 구할 수 없는 세계 이웃들에게 성경을 보내는 사역에 기도와 헌금으로 동참하는 주일”이라고 덧붙였다.

한교회는 1899년 당시엔 성경강림주일인 5월에 ‘회와 협력해 한국에서 제작한 성경을 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교회는 1899년 당시엔 성경강림주일인 5월에 ‘회와 협력해 한국에서 제작한 성경을 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섬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대림절 안의 12월 둘째 주일을 성서주일로 지정해 지키고 있다. 대한성서공회는 전쟁과 가난으로 고통받는 지구촌 곳곳에 성경을 보급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고통받는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올해 요한복음 성경 35만3600부와 함께 우크라이나어 전체 성경 2만 8000부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현재 4차 발송을 위한 우크라이나어 성경 1만2000부를 제작 중이며 5차로 추가 지원할 물량을 협의 중이다.

지난 9월 폴란드의 우크라이나 난민촌을 찾아 성경을 전달한 호재민 대한성서공회 총무는 “여성과 어린이가 난민의 대부분이었고, 고국에 두고 온 남편과 가족 걱정으로 근심과 두려움이 깊어 보였다”면서 “폴란드성서공회와 함께 지역교회와 협력해 한국에서 제작한 성경을 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피종진 목사 12월 부흥성회

- 총신대학교 56회 동문회 회장
- 연세대학교 총동문회 상임이사
-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이사
- 한국뉴욕주립대학교 영어 연구원 동문회 사회장
- 미국 Philadelphia Faith 대학원 총장 Carl McIntire(D.Min)
- 미국 Henderson Christian University 총장 Henderson Belk(Th.D)

010-5255-7777
Godbless3377@gmail.com

1(목)~2(금)	청주 길보리 축복교회 (김영순 목사) 010-8434-0154
5(월) 오전	제54회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 (정소 서울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 호텔)
5(월)~6(화)	부산 감람산기도원 (원장 이옥란 목사) 주최 뉴글로벌 부흥사회 (대표총재 피종진 목사 대표회장 정태운 목사) 010-2296-0675
7(수) 오전	한미연합부흥경사단 사명자성회 (대표회장 이귀범 목사) 010-2238-3999
	미스바금식기도원 (원장 서순함)
7(수)~8(목)	춘천 허누리교회 (홍철호 목사) 010-7203-3678
9(금) 오전	국민일보 (회장 조인재) & 재 세계복음화협의회 (대표총재 피종진 목사 실무총재 한영훈 목사) 국민대신성회 010-2009-7272
9(금) 저녁	부천소망교회 철야성회 (박재우목사)010-2232-0176
10(토) 오전	남서울중앙교회 (원로 피종진 목사 담임 여찬근 목사) 임직식 (02) 3411-9191
10(토) 오후	서울누가신대원 (대표회장 김성만 목사) 010-6230-5530
12(월) 오후	강남금식기도원 (원장 최동인 목사) 교무부장 김진석 목사) 010-3790-2462
13(화)~14(수)	구미 방주교회 (강영선 목사) 010-8280-0346
16(금) 저녁	서울대학교 ABKI 정소 동대문 메리드호텔
19(월) 오전	대전 새길교회(김정호 목사) 010-9588-9284
19(월) 오후	서울신학교 (회장 김준환 목사)
	주최 : World 기독교 총연회 (이사장 정진희 목사 대표총재 정도출 목사) 010-7567-8291
	서울강남 반석교회(강사광 목사)010-8331-3431
	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관 대강당(대표총재 한정수목사)010-8082-9569
	익산 거북한 땅 선교교회 (원장 김현숙 목사)
	주최 : 노혜미아 부흥사회 (대표회장 김승희 목사) 010-7522-0236
	국제신학교 (이사장 강영준 목사) 010-9260-1091
	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관 임직식 (총회장 김남익 목사) 010-6663-3310
	서울 무지개교회 (이복자 목사) 무지개 선교회 18주년 기념예배
	서울강남 반석교회(강사광목사)010-8331-3431
	김포 김림교회 (조경숙 목사) 010-8222-1992
	제주 컨퍼런스 주최 한국교회 예배회복운동본부 (대표총재 피종진 목사)
	대표회장 김기성 목사 010-5270-7105
30(금) 오전	한미연합부흥경사단 (원장 이영근 목사) 주최 한국기독교부흥단체 총연합회
31(토) 저녁	남서울중앙교회 (원로 피종진 목사 담임 여찬근 목사) 02) 3411-9191

대한예수교장로회 www.nasca.or.kr

남서울중앙교회 Tel. 02)3411-9191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40(개포동) Fax. 02)401-7770

교회선교의 선순환 (virtuous cycle) (23)

조용중 선교사
(KWMC 사무총장, Ph.D)



영웅주의는 경계하나 의도적 개방성을 가지라

선교사는 '영웅인가'라는 질문에 답은 무엇일까? 영웅을 사전적으로는 "지혜와 재능이 뛰어나고 무용(武勇)과 담력에도 빼어난 사람. 또는, 보통 사람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할 정도의 뛰어난 일을 이루어 대중으로부터 열광적으로 존경받는 사람"을 일컫는다.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영웅이 아니다. 그러나 "보통 사람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할 정도의 뛰어난 일을 이루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많은 선교사는 영웅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다. 불가능하게 보이는 일을 처음부터 시도하기 때문이다. 선교지의 모든 상황을 고려한다면 복음을 전하여 현지인이 가장 이해되지 않는 것을 수용하며 개인과 사회와 국가의 변화가 올 것이라고 믿는 것은 불가능에 도전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선교사들은 영웅이 아니다. 영웅이라기보다는 너무나 작은 사람들이다. 크게 보이는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더우기 "대중으로부터 열광적으로 존경받는 사람"을 말한다던 더더욱 아니다. 특히 열매가 눈에 나타나 보이지 않은 지역에서 평생을 섬기고 있는 선교사들의 경우는 그렇다. 그렇다고 선교사들이 영웅의 대열에 들어가는 노력을 한다면 그것은 잘못될 확률이 너무나 큰 일이다.

1979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하고 1980년 소련의 마더 테레사는 알바니아계인으로 오늘날 북마케도니아에서 태어났다. 살해를 당한 아버지로 인해 아이랜드로 이주하고 그곳에서 수녀가 되어 후에 선교사가 되어 인도 콜카타에 자리

를 잡고 사역을 시작하였다. 그녀가 수많은 죽어가는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도움을 주는 것을 보고 처음엔 가톨릭으로 개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경계를 하였지만 후에는 모두에게 종교를 강요하지 않고 도움을 주는 것을 보고 자랑스럽게 여겼다고 한다. 여기에서는 가톨릭의 선교가 과연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가를 떠나서 한 종교인의 선행이 영웅이 되고 싶어서 그렇게 살았다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그녀는 종교인으로서 영웅으로 인정받았으나 조금도 영웅주의에 빠진 것은 아니었다.

영웅주의는 자신이 마치 영웅이나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태도를 가진 것을 말한다. 영웅이 안되는 사람이

되었다고 정죄를 하는 일도 일어난다. 그렇게 될 때에 잘못하면 이단시비에 걸리게 되는 경우가 종종 일어난다. 영웅주의의 시작은 처음 선교지를 선택하는 것부터 나타나는 경우를 보게 된다. 혼자서 무엇인가를 시작하려는 태

도 종족을 위해서 개척선교가 더욱 많이 필요하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하지 못한 일을 내가 이루리라는 생각부터 잘못된 길을 나서기 십상이다. 선교지와 사역의 선택은 긴 기독교 역사의 한 줄기에 점을 이어가는 것과 같이 생각해야 한다. 내가 굽은 선을 그어야만 하겠다는 생각은 영웅주의를 낳게 한다. 영웅주의는 경계해야 하지만 선교의 야성은 더욱 살아야 한다. 무엇보다 새로운 시대의 선교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의도적인 개방성을 가지고 눈을 크게 떠야 한다. 우리 모두는 자연스럽게 다가서서 묻혀 버리기 쉬운 타성을 경계해야 한다. 선교의 현장에 그냥 살아간다고 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있는 교

근처의 중국인들을 복음전파의 대상으로 삼고 삶을 통해서 또한 직접적인 복음전파를 통해서 의도적으로 다가서지 않고는 자연스러운 복음의 전파는 없다. 특별한 경우에 중국인이 한국교회를 찾아와서 복음을 듣거나 한국인을 만나서 기독교인의 삶을 보고 감동을 받아 관심을 가지고 복음을 찾아나서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그것까지도 의도적인 만남이 아니고는 거의 기회가 없다. 이렇게 의도를 가지고 찾아나서는 야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라 하더라도 팬데믹의 어두운 골짜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며, 전쟁의 포화 가운데 난민의 비참한 행렬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며 기회를 찾아 나서야

수 있도록 현실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 또한 790만여명의 난민이 발생해서 대부분은 유럽 각국으로 흩어져서 머물고 있다. 폴란드에 150여만명이 머물고 있는데 이들이 추운 겨울을 보내야 할 것을 걱정하고 있다. 이들은 겨울 옷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따뜻한 음식을 공급받아야 한다. 이들을 위해 선교적 NGO인 글로벌호프는 다른 NGO 프로보노와 한국교회봉사단과 함께 제1호 호프밥차를 운영하기로 하고 12월부터 폴란드에 있는 난민들에게 따뜻한 라면과 음식을 제공한다고 한다. 우리 모두는 난민들과 함께 속히 전쟁이 끝나기를 바라지만 많은 난민들이 유럽의 다른 나라들로 흩어져 교회들을 중심으로 모이기 시작한다고 한다. 전쟁 전에 우리 선교사들은 신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통해 우크라이나 성도들을 훈련시켰다. 그들이 이제는 난민 교회들을 통해서 유럽에 복음의 전초기지를 만들고 있어서 언젠가 유럽 각국을 복음화 하는 일이 이루어진 나그네들을 통해 일어날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곳에 함께 해야 할 것이다. 제2,3호 호프밥차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누어지고 복음의 통로로 사용되는 일에 교회는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다. 멀리서 되어지는 일 뿐만 아니라 미국 내에서 교회 주변의 타민족 구성을 살펴보고 그들을 위한 맞춤형 선교 프로그램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모든 성도의 삶이 의도적 복음전파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 선교사로 특별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물론이고 치열한 생존경쟁의 현장에서도 주님의 일하심을 믿고 참여하여야 한다. 선교현장으로 직접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일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할 것이다. 이런 일들이 선교의 영웅주의는 아니지만 의도적인 개방성을 가지고 선교에 임하는 것이다.

dr.yongcho@gmail.com



선교지와 사역의 선택 한 줄기에 점으로 이어갈 것인가 굽은 선을 그어 이어갈 것인가

영웅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은 위험하다. 개인에게도 위험하고 어쩔 수 없이 영향을 받게 되는 주위의 사람들을 위험에 빠지게 하는 요소가 된다. 선교지에서 특히 위험한 사람은 하늘의 직통 계시를 받아 행동하는 것 같은 영웅주의에 빠진 사람들이다. 이들의 특징은 자신들이 열두 사도의 다음으로 선교지를 밟은 사람인양 행동한다.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선교적 노력을 잘못되었다고 단정을 한다. 때론 다른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잘못

도부터 문제의 시작일 수 있다. 현존하는 모든 단체나 개인들은 잘못하고 있다는 전제가 바탕에 있을 수도 있다. 자신이 현존하는 단체에 부족해 서가 아니라 넘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필요 없다는 생각을 한다면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그 누구도 어떤 한 단체도 선교의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개인이나 단체나 지금까지 아무도 건드려보지 못한 곳이 있는지 찾아 나서는 경우가 있다. 물론 아직도 남아있는 많은 미전

회가 성장하고 활발하게 양육이 이루어지는 현장이라고 하더라도 우리와 문화가 다른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성장하는 교회를 보고 다가오는 것은 아니다. 한 교회에서 장년부가 잘 된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대학부가 잘 되는 것은 아니다. 대학부를 위한 의도적인 노력도 선교의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한국교회가 잘 성장한다고 해서 근처에 있는 중국인들이 자연스럽게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에

가장 어려운 환경 가운데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까지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어야 할 것이다. 너무나 큰 피해를 입은 우크라이나인들을 위한 구호의 노력을 쉬지 말아야 한다. 현재는 우크라이나 본토에서 직접 일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없지만 남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전 세계의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며 돕고자 원한다는 것을 알



인문학으로 읽는 예수님 생애

③ 예수님의 출신 지역 갈릴리 연구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갈릴리 사람들이라 불렀습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갈릴리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갈릴리는 예수님 생애를 이해하는데 중요합니다. 갈릴리는 예수님의 고향이자 공생애 활동 무대였습니다. 아울러 갈릴리는 12제자들의 고향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주요 행적이 갈릴리에 있었습니다. 33개의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표적) 중에 25개가 갈릴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스톤(Easton) 성경사전에 의하면 예수님의 32개의 비유 중에 19개가 갈릴리를 배경으로 합니다. 예수님의 첫 기적을 베푼 가나도 갈릴리에 있고, 예수님의 명설교인 산상보훈이 행해진 곳도 갈릴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재판받으시던 법정에서 베드로는 신분이 노출됩니다. 그들이 베드로에게 "당신도 저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마 26:69)

혹은 "당신이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당이다"(마 15:70)라고 말합니다. 마태도 마가도 베드로를 향한 사람들의 질책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맹세하고 부인하자 "...결에 있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라며 베드로를 질책합니다. 아마 베드로의 갈릴리 사투리가 베드로를 노출시킨 것 같습니다. 19세기 전후로 역사적 예수에 대한 연구가 활기를 띠면서 갈릴리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졌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펼쳐진 갈릴리를 살피므로 예수님 삶의 실재를 알아보려는 노력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들이 신약 신학계에서 활발하게 나타났습니다. 예수님 당시 갈릴리 지역은 중요한 교통의 요지이면서 아름다운 경치와 기름진 옥토를 갖고 있어서 인구가 매우 많았



강태광 목사
(월드쉐어USA대표)

습니다. 로마시대에는 헤롯 안디바가 건설한 디베라가 갈릴리 지역의 수도이며 상업 중심지였습니다. 헤롯 안디바는 헤롯 대왕의 아들입니다.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가장 자주 등장하는 헤롯 안디바입니다. 헤롯 안디바는 아버지 헤롯 대왕처럼 건설공사에 몰두했습니다. 그가 건축한

리라고 하면 북부 갈릴리, 그리고 갈릴리 호수 그리고 남부 갈릴리를 통칭합니다. 이 지역 내에는 가데스(도피성), 고라신, 벨산, 므깃도, 나사렛, 가버나움 등의 도시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갈릴리는 바나나, 목화, 오렌지, 올리브 등 갖가지 농산물이 풍부하게 재배되고 있으며 갈릴리 호수의 물은 전 이스라엘 땅의 음용수, 농업수와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생명선입니다. 갈릴리 바다의 물은 흡사 사람 몸의 혈관같이 연결된 수로를 통해 전 국토에 공급됩니다. 갈릴리는 성경에 76회 언급되고 있습니다. 구약에 6회, 사도행전에 6회를 제외하면 64

여기서는 갈릴리가 도피성 중에 하나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왕상 9장에서 성전 건축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두로(Tyre) 왕 히람(Hiram)에게 솔로몬왕이 갈릴리 지역 20개 도성을 하사합니다. 게다가 왕하 15장 29절에 갈릴리를 비롯한 여러 도성이 앗수르 왕에게 점령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선지자 이사야가 이방의 갈릴리가 영화롭게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사 9:1) 예수님보다 700년이 앞섰던 이사야가 갈릴리가 영화롭게 되리라고 예언합니다. 이 예언을 마태가 다시 인용하면서 예수님 사역과 연결합니다. 이 이방인이 거주하는 역사를 가졌던 갈릴리가 예수님의 사역

정통 유대인들은 선호하지 않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주님은 비천한 땅에 문화적인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갈릴리 지역은 갈릴리 호수의 물과 비옥한 토지로 유대 땅에서 유명한 곡창지대였고 많은 농사들이 이뤄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주 농부의 비유를 사용했습니다. 고대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Josephus)는 비옥한 땅에 문화적인 사람들이 거주했다고 전하면서, 당시 갈릴리에 3백만 명이 거주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천 명이 예수님의 청중이었음이 합리적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여인

예수님의 고향 ... 공생애 활동 무대

회가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의 갈릴리는 사도행전 몇 곳을 제외하면 대부분 예수님의 행적을 묘사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 회당들을 방문하면서 공생애를 시작했습니다. 갈릴리에 대부분이 갈릴리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갈릴리가 구약에서 처음 등장하는 것은 예호수아 20장 7절과 21장 32절에 등장합니다.

으로 말미암아 영화롭게 되었던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갈릴리는 앗수르의 침략 후에 한동안 이방인들이 거주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바벨론에서 귀환하는 유대인들의 새로운 정착지가 되면서 갈릴리는 유대인들의 거주지가 되었습니다. 프레데릭 브룬너는 "유대 땅에서 이방 문화가 가장 성행했던 땅이다"라고 합니다. 당시 갈릴리는

들에게 전사가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먼저 가실 것을 알려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며 남기신 말씀도 "갈릴리 사람들아!"로 시작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에게 남긴 유언이 재림의 약속입니다. 갈릴리는 예수님 공생애의 처음과 끝을 장식합니다. chap1207@hotmail.com

매일가정예배

전화령(캄보디아 선교사)

whiteyou11@yahoo.com

월 사탄의 마지막 (계 20:1-3) 찬 419장

첫째, 그의 이름 (2), 옛 뱀은 아담을 넘어뜨릴 때 이용한 뱀의 상징을 가리키고, 마귀는 귀신, 악령들을 부려 계속 교회를 유혹하는 자의 이름이고, 사탄은 하나님의 행세로 거짓으로 세상을 피는 자란 뜻에서 사탄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용, 참사자 등으로 묘사되었습니다. 둘째, 사탄은 천사에게 잡혀 천 년간 무저갱에 들어 갑니다. (1, 3) 때가 되어 사탄은 마침내 자기의 거처인 음부에 떨어져 영원한 형벌을 받습니다. 이것

은 하나님의 왕권이 완전히 드러나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그러나 잠깐 놓이게 됩니다. (3) 천년 동안 교회가 지상에서 왕 노릇을 하는 일을 마치기까지 사탄의 활동이 중단되지만, 최종 심판을 위해 시한적 활동 기회가 하락되지만 구속의 최종 완성을 향한 수순일 뿐이고 그 후 그는 영원한 형벌 속에 떨어집니다. 이것을 아는 성도는 영전에서 절대승리를 확신해야 합니다.

화 천년왕국 (계 20:4) 찬 221장

땅에서 시작한 교회는 구속의 완성인 그리스도의 왕국을 땅에서 경험하게 되어있습니다. 숫자적으로 천년은 아닐지라도 일정한 기간, 그 왕권을 누리게 됩니다. 첫째, 교회는 심판의 권세를 받습니다. 사탄의 시험을 이기고 살아남은 자들은 그 왕권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의를 나타냅니다. 만물을 심판하는 권세를 가진 자로서 그 영광에 참여할 것입니다. 둘째, 순교자의 영혼과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그 왕권에 참여합니다. 믿음을 신실히 지킨 자만이 행할 수 있습니다. 즉, 참 교회가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는 뜻입니다. 셋째, 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을 다스립니다. 첫 아담이 에덴에서 잃은 영권이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영권을 주장합니다.

수 첫째 부활에 속한 자들 (계 20:5-6) 찬 151장

요한은 교회의 마지막 영광을 보임으로 교회에게 참소망을 안겨줍니다. 첫 부활에 속한 자인 교회는 어떤 은혜를 받습니까? 첫째, 그들은 그리스도의 왕권에 동참하는 복을 얻습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신령한 복이 그대로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엡 1:3) 둘째, 그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왕이신 그리스도를 섬깁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자신을 모든 산제물로 드린 거룩의 질정에 이릅니다. 셋째, 그들은 둘째 사망과 상관 없는 자들입니다. 교회는 이 땅에서 둘째 부활에서 벗어난 자들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소망을 안고 살아갑니다.

목 새하늘과 새땅 (계 21:1-2) 찬 40장

요한이 본 환상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첫째, 에덴동산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1) 첫 하늘과 첫 땅 그리고 바다도 모두 사라지고 새로운 창조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첫 창조에서 잃었던 새로움이 회복되어 새사람이 거거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것은 첫 아담이 맞바지 못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선물입니다. 둘째,

거룩한 성이 하늘로서 내려옵니다. (2) 재창조된 땅 위에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이 내려옵니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은 거룩으로 충만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셋째, 신부와 같이 단장된 모습입니다. (2) 이 성은 건물보다 그리스도에게 붙어 변화된 영광스러운 교회를 주목하게 합니다. 이미 거기에 들어간 자로서 항상 거룩으로 준비합니다.

금 하나님의 장막 (계 21:3-4) 찬 219장

앞서 말한 새 예루살렘을 여기에 하나님의 장막이라고 말합니다.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첫째, 임마누엘을 누립니다. 하나님과 신자와의 새 언약이 부자관계, 부부관계, 곧 임마누엘로 완성되는 그 영광에 참여합니다. 땅에서 그리스도 안에 누리던 그 영광을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경험하게 됩니다. 둘째, 그 장막은 잠깐 하늘 위로가 넘칩

니다. (4) 주를 위해 헌신의 길에 일어난 모든 고통과 눈물을 하나님이 친히 닦아 주십니다. 하늘의 위리가 주어진다 것입니다. 셋째, 죽음과 거기에 속한 모든 그림자가 모두 사라지고 생명만이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상태에서 영생을 즐기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우리는 이미 그 영광의 누림을 찬양합니다.

토 구속의 완성인 새창조 (계 21:5-6) 찬 293장

구속의 완성인 새창조의 사건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첫째, 하나님이 친히 새창조를 완성하십니다. (5) 첫 창조의 회복 이상의 새 창조를 이루심으로 하나님의 구속이 완성됩니다.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자들과 피조물을 새롭게 하시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둘째, 특히 기록하라 명하십니다. (5) 천당의 삶을 보임은 성경을 기록할 목적이 바로

새 창조 곧 구속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구속의 마지막에 성경의 권위를 나타내심은 성경만을 의지한 믿음의 구원을 강조하십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모두 성경대로 믿을 증거하신 주님은 그 마지막에 또다시 성경의 절대 권위를 주장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이루신 완전한 구속, 곧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선포합니다.

교회음악 이야기(24)



윤임상 교수
(월대미선대학교대학원)

감사함으로 받으면

러시아의 대 문호 톨스토이(Leo Tolstoy 1828-1910)는 “세상에 모든 책은 다 불태워도 도스토옙스키(Fyodor Mikhailovich Dostoevsky 1821-1881)의 책은 남겨놓아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바로 우리가 도스토옙스키를 세계적인 대문호라고 지칭할 수 있는 한 단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도스토옙스키는 그의 삶에서 가장 혹독한 고통의 시간이라고 말하는 시베리아에서 4년의 수용소 생활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값진 시간이었다고 고백합니다. 뺨속까지 파고드는 맹렬한 추위와 배고픔, 5kg 이나 되는 무거운 족쇄를 발에 차고 지내면서도 창작에 몰두하여 글을 쓰는 것이 허락되지 않은 유배 생활에서 머리로 소설을 쓰고 그것을 외워서 출소 후 글로 써서 그 유명한 소설들 “죄와 벌, 백치, 카라마조프 씨네 형제들” 등의 책들을 남기게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의 값진 발견은 그때가 예수님을 개인적인 구주로 영접하는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가 시베리아로 오는 열차 정거장에서 어느 여인에게 건네받은 신약 성경을 읽으며 복음을 바로 알게 되었습니다. 후에 그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누군가 내게 그리스도는 진리가 아니라 증명한다 해도 나는 그리스도와 같이 있고 싶다” “나는 진리보다는 차라리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다.” “기적으로부터 신앙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신앙으로부터 기적이 나온다.” 그의 이 고백을 통해 역설의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는 것을 통해 신앙을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른 신앙을 통해 매순간 기적을 만들어가는 삶이 될 수 있다는 이 역설을 말합니다. 도스토옙스키의 이런 고상한 고백들을 보며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이라’(빌 3:8)는 말을 했던 바울의 메시지를 연상하게 합니다.

이것을 통해 도스토옙스키나 사도 바울은 모든 환경 (in all circumstances)에서 감사를 바로 알고 실천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골로새 교회를 향해 쓴 말씀 중 골 2:6-7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

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말씀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저자 바울이 전체적으로 강조하려고 한 것은 ‘예수님을 바로 알라’는 것입니다.

당시 헬라 문화권에 있던 골로새 교회 지역이 만연하고 있던 이단 사상으로 인해 골로새 교인들이 많은 혼란을 빚는 가운데 예수님은 ‘만물의 으뜸’ 이심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서 뿌리를 박고 세움을 받아 모든 조건에서 감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는 말을 본 서신에서 무려 27회나 거듭 강조해서 말한 것입니다.

오르가니스트, 이자 작곡가인 홍지열님이 쓴 감사 찬양 중 ‘감사함으로 받으면’ 찬양의 가사에서 감사의 완전성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괴로움도, 즐거움도, 높음도, 낮음도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니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 감사함으로 받으면 모든 것이 은혜니 감사하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고백을 하였던 도스토옙스키, 그리고 바울의 고백이었고 그들의 삶에서의 실천이었습니다.

금세기 복음주의 최고 변증가요 영성의 대가로 평가받았던 달라스 윌라드(Dallas Willard 1935-2012)가 어느 목사님이 질문을 받았습다.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 영적 성장을 더 할 수 있을까요?” 달라스의 대답은 단순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상생활 속에서 깊은 자족과 기쁨과 확신을 경험하도록 당신의 삶을 조정해야 합니다”

영적인 삶을 사는 것이 우리 나그네 인생의 길에 있어 중요한 목표라고 하면 일상의 모든 환경 (in all circumstances)에서 감사를 고백하고 그것을 통해 자족하는 삶이 되어야 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도스토옙스키가, 그리고 사도 바울이 발견한 진리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찬양의 가사 속에서 강조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iyoon@wmu.edu



“사랑은 가도 사랑은 남습니다”

가슴으로 쓴 이야기는
세월이 가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열심히 한 생애를 살아온
당신이 남긴 사랑의 이야기들

기억은 추억이 되어
더욱 소중한입니다

최고의 예를 드리는
하늘 가족, 중앙 장의사

머리카락 한올까지
마지막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당신의 이야기
.... 사랑의 꽃이 됩니다



마지막 정성속에 함께 보낸 31년
Since 1988, 최초의 한인 공인장례사

모든지점 - 대형 파킹장 완비

Central Funeral Home: BongHo Ha F.D. NJ LIC 4569 | Gina Chong F.D. NJ LIC. 4504 | John Chong F.D. NJ LIC 5079

NY: 샌포드 애비뉴 162-14 Sanford Ave., Flushing, NY NJ: 릭터필드 809 Broad Ave, Ridgefield, NJ NJ: 잉글우드 129 Engle St, Englewood, NJ

장례사전계획 | 장례식 코디네이터 | 성직자 초빙 | 묘지구입 상담 | 운구 한국소환 | 이장 | 기타 장례의 모든 것

뉴욕 | 718. 353.2424 뉴저지 | 201.945. 2009

세계 곳곳에 있는 소수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 ▲ 국가명
인도네시아 파푸아
- ▲ 종족명
엘로피 종족
- ▲ 인구
약 3,000 명
- ▲ 종족의 종교
기독교 및 토속 신앙 (정령 중배)



- ▲ 기도제목
 1. 2033년까지 엘로피어 신약 성경 완역이라는 분명한 꿈을 주심에 감사, 이 꿈의 성취를 위한 번역팀과 종족 교회, 기도와 물질의 동역자들이 함께 힘을 모아 전진하도록
 2. 전임 번역자로 헌신한 마이켈/유삭/쏘니/보리아스가 마가복음, 디모데전후서를

번역해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말씀에 순복하는 삶으로 채워지도록
3. 복음 전파에 소외되었던 작은 종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막혔던 곳이 열리고 물이 바다 덮음같이 복음이 구석구석까지 전해지도록
(GBT 성경번역선교회)

가정선교



이재근 목사 (미주가정선교회 대표)

63. 인간이 저지른 최대의 실수는 결혼

“인간이 저지른 최대의 실수는 결혼이다” 이 말은 어느 철학자가 해학조로 한 말입니다. 이어서 “결혼은 판단력의 부족으로 하는 것이고, 이혼은 이해력의 부족 때문에 하는 것이고, 재혼은 기억력이 없어서 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냥 웃자고 해본 말이겠지만, 마음 깊숙이 숨겨 둔 인간의 약점이 타로 난 느낌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사회학자의 말에 의하면, “인간이 결혼을 하면 배우자 때문에 자유가 구속되는데,

서도 속아 주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신중한 사람들 중에 결혼이 늦어지거나, 결혼을 못하고 마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러나 결혼을 하는 사람이 다 어리석은 사람이고, 생각이 모자란 사람이란 뜻은 아닙니다. 세상은 논리대로만 살 수도 없고, 계산대로만 살 수도 없고, 이익만 쫓아 살 수도 없다는 뜻입니다. 시련이야 있겠지만 그래도 자식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하늘의 뜻 때문에도 살아야 되고, 도덕의 규범 때문

리가 있습니다. 사실 재혼은 하는 것보다는 안 할 수 있으면 안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재혼은 초혼보다 서로 간의 나이와 자녀 등 조건은 불리하고, 정신적 경제적 부담은 더 많습니다. 그러나 서로가 자기 자존심을 조정할 수 있어야 되고, 돈이나 이해같은 것은 계산하지도 말고, 바보처럼 살겠다는 각오가 있어야 됩니다. 감정과 슬개도 빼놓고, 오로지 당신만을 위해 살겠다는 각오가 있지 않으면 안됩니다.

“결혼은 판단력 부족, 이혼은 이해력 부족, 재혼은 기억력 부족으로 한다”

그러나 혼자 살면 고독하고 불편해서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키에르 케고르도 “결혼은 해도 후회하고 안해도 후회하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 결혼을 ‘연애의 무덤’이라고 했는데, 이 말은 결혼을 하면, 낭만과 연심(그리워 하는 마음)이 매장되고 만다는 뜻일 것입니다. 또한 어떤 철학자는 “전쟁터에 나갈 때는 한번 기도하고, 바다에 나갈 때는 두 번 기도하고, 결혼 할 때는 세 번 기도하라”고 했는데, 결혼의 노정엔 전쟁터나 험한 바다보다 더 어려운 일이 있으니, 각오와 준비를 철저히 하고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결혼하기 전에 상대방을 정확히 보기 위해 두 눈을 부릅뜨고 봐야 하지만, 결혼을 한 다음엔 한눈을 감고(실수를 눈 감아 주기 위해) 살아야 된다는 말도 있습니다. 결혼은 결국 속는 줄 알면

도 살아야 됩니다. 불만이 좀 있더라도 ‘원래 결혼이란 그런 것이려나...’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만일 사람들이 모두 결혼을 안하고 독신으로 살면, 사회라는 공동체는 금방 무너지고, 도덕도 무너지고, 역사도 멈추게 되니, 그것은 하늘의 뜻에도 크게 반하는 행위가 됩니다. 그리고 이혼은 이해력 부족으로 한다는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상대방을 이해한다는 말은 인정해준다는 말이고, 용서해주고, 상대방의 장점을 평가해주고, 참아주고, 사랑해준다는 말입니다. 그런 이해심이 있으면, 이혼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재혼은 기억력 부족으로 한다는 말도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결혼생활의 가시에 찔려도 보고, 결혼생활의 부담을 체험해 해봤으면 재혼은 절대로 안 할 것 같은데, 또 결혼하는 것을 보면 기억력이 부족하다는 말에 일

이처럼 인간은 결혼이 최대의 실수라는 경고를 들으면 서도 결혼도 하고, 이혼도 하고, 재혼도 하는데 그런 실수를 통해 행복도 얻고, 대업도 이룹니다. 그리고 보면 ‘결혼은 인간의 위대한 실수’인 셈입니다. 아예 결혼을 하지 않았으면, 이혼도, 재혼도 할 필요가 없기때문에, 인간이 최대의 실수, 위대한 실수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천지만물 창조주의 최대 걸작품인 인간,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신적인 결혼제도를 통해 믿음의 가정을 이루시고 축복하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Kingdom of God)가 확장되기를 원하셨던 뜻대로, 이혼과 재혼이 없는 신성하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통하여 가정 천국을 이루는 것이 가정선교의 목적입니다.
jaekunlee00@hotmail.com
(562) 714-0691

싱고 펠리 헝가리

“이와 같이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마태복음 20:16)
기억하십니까? 천국은 마치, 주인이 품꾼을 포도원에 들어 보내는 것 같다는 비유입니다. ‘나중에 온 사람들’, ‘먼저 온 자들’과 똑같이 품삯을 주시는 주인이 너무나 고맙고 황송합니다. 그래서 야마, 다음 날 아침부터는 가까이 일찍 포도원에 가서 열심히 일했을 것입니다. ‘먼저 온 자들’은 이러면 됩니다. “봐! 우리 주인 참 좋지요? 그런 분이서! 포도원에 잘 왔어. 내일은 나와 같이 일찍부터 일하자!” 한편, “아무도 품꾼으로 불러 주지 않을 정도로 연약한 자들”은, 다음 날에도 비록 일하지 못할 형편이지만, 포도원에 들어 보내줄 뿐더러 똑같이 삯(구원)을 주신 그 주인의 은혜에 감동하여, 그저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또 ‘나이들어 쇠약해진 자’는, 젊은 날에 비록 먼저 된 자였으나 나중 됩니다. 그가 말 합니다.

“주인이여! 그때 부족한 저를 포도원에 들여보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뎠던 추억들, 그 눈물과 환희를 잊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딸입니다. 우리들의 자녀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중 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 된다”는 말씀을 명심하며, 믿음으로 살아 갑니다. 지난 주 금, 토, 주일은, 독일의 한 한인교회에서, ‘가을 신앙 수련회’로 말씀을 세 차례 전했습니다. 10년 쯤 전에 ‘헝가리 단기선교’를 왔던 유학생들도 만났는데, 참으로 반갑고 기뻐했습니다. 저희 교회에, “우크라이나-헝가리게 피난민” 가족들이 주일예배에 나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또, 한 달에 한 번은 “우크라

이나-헝가리게 집시 피난민 커뮤니티”가 저희 교회에서 예배 드립니다. 먼 곳에서 차로, 기차, 공중교통으로 와서, 고향 사람들, 친척들, 친구의 얼굴을 대하며... 얼마나 간절히 찬양하며, 기도하고, 말씀에 화답하는지... 아기와 어린아이들, 청년들, 이들이 훗날 주의 일꾼 되길 기도합니다. 저희 기도 제목입니다. 1) “소금과 빛 개척교회”와 “거리의 교회”를 통해,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이 많게 하소서! 2) “우크라이나-헝가리게 피난민 집시 커뮤니티”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소서! 자녀들이, 청년들이, 믿음으로 공부하며 준비하여, 주께 헌신하는 일꾼들 되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Majestic God! 헝가리 선교사, 김홍근&서명희 드림.



FAMILI STUDY

Food And Microbiome Longitudinal Investigation

NYU 의과대학 웨밀리 연구 참여자 모집 안내

- 미국 국립보건원(NIH)과 NYU 의대 웨밀리 연구팀 (총책임자: 안지영 교수)은 세계 최초로, 여러 민족의 식습관, 환경, 박테리아와 만성 질병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 특히 미국에 거주하시는 한국인의 질병 발생 및 위험요인을 연구하여, 질병 예방 및 보건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 의료보험이나 신분제에 관계없이, 40세 이상인 미국내 거주자는 한번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을 보내 주시면,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우송해 드립니다.
- 집에서 완료하신 후, NYU의대로 무료 우송해 주시면, 25불 기프트카드를 보내 드립니다.

NYU 의과대학 웨밀리 연구 연락처

FAMILI Study (Hee Choi, MS, RD) NYU School of Medicine 180 Madison Avenue # 3-23 New York, NY 10016

전화: 646-501-3673 | 646-501-3674
문자: 929-410-4475
이메일: hee.choi@nyulangone.org
웹사이트: http://www.nyufamili.org/kor/index.php

한분 한분의 참여는 우리의 2세에게 보다 건강한 사회를 남겨 줍니다.

여러 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독신청서

미주크리스천신문의 정기구독을 신청하며 1년 구독료를 동봉합니다.

★ 1년 구독료	미국.....	\$100	유럽.....	\$240
	캐나다.....	\$130	남미.....	\$240
	한국 및 동남아시아.....	\$240	아프리카.....	\$240

신청 유형	<input type="checkbox"/> 본인구독 <input type="checkbox"/>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냄	
구독자 이름 (혹은 후원자이름)	한글: _____	목사 <input type="checkbox"/>
	영어: _____	평신도 <input type="checkbox"/>
배달 주소	_____	
전화/Fax	() ()	
★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내는 경우에는 받는 분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받는분 이름	한글	영어
전화번호/Fax	() ()	() ()
배달 주소	_____	
교회/기관명	_____	

▶ E-mail로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E-mail: nychpress@gmail.com

신청일자: 20__년 __월 __일 신청인 서명: _____

★ 저희 미주크리스천신문을 구독(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p>■ L.A: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213)674-7982, (323)665-0009 E-mail: lachpress@gmail.com</p>	<p>■ N.Y: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gmail.com</p>
---	---

온라인 게이머들, 하나님 만난다!

Crossfirecast.com, 온라인 게이머/목회자 데이빗 페티, '신앙과 게임' 접목하여 공동체 형성

비디오 게임을 즐겨하던 한 목사가 온라인에 형성되어 있는 강력한 커뮤니티를 발견하고, 이를 사역을 위한 새로운 기회로 삼았다.

바로 신앙과 인터넷 게임을 결합한 크로스파이어(CrossFire)는, 종교와 관련한 토론 및 비공식 토론을 위한 커뮤니티를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했다.

1980년대 이후, 비디오 게임과 게이머(gamer)들에게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팩맨과 전자오락실 그리고 지저분한 지하실에서 번쩍이는 블루스크린을 통해서 하던 비디오 게임은 이제 현대 사회에 압도적으로 시장을 확장해왔다.

콜로라도주 콜로라도스프링스에 소재한 세인트폴 연합감리교회의 담임인 페티 목사는 2017년부터 이 사역을 시작했다.

“어린 시절부터 게임을 좋아했어요. 어른이 된 저는 종종 게임으로 시간을 낭비한다 말을 들곤 했는데, 그 외의 다른 ‘여가 생활’을 시간 낭비라고 말하는 건 옳지 않다고요. 결국 관점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진다는 것을 깨달았죠.”라고 그는 말했다.

이러한 관점은 그를 어떻게 사람들이 모여 공동의 관심사를 중심으로 그룹을 만들고, 유대를 형성하는지 탐구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것은 교회가 게이머들로부터 배워야 한다는 예상치 못한 통찰력으로 그를 이끌었다.

“나는 많은 게임 커뮤니티가 내가 알아 왔던 일부 교회들보다 더 강한 공동체 의식을 가진 것을 발견했다.”라고 그는 말했다.

그 후 페티 목사는 게이머를 위한 교회가 존재할 수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기 시작했다. 그

는 자신의 아이디어를 나누고, 그것을 시도하고자 하는 사람들과 그룹을 만들었다. 그리고 마침내 이 그룹은 그가 꿈꿨던 대로 게이머들을 위한 교회가 되었다.

크로스파이어는 페티 목사가 다양한 디지털 공간 속에 존재하는 서로 죽이 잘 맞는 그룹을 부를 때 쓰는 이름이다. 이 사역은 커뮤니티를 구축하는 페이스북(Facebook)과 음성 채팅으로 특화된 플랫폼인 디스코드(Discord) 그리고 게임을 실시간으로 중계하며, 방문자와 대화하고 자선 단체를 위해 모금 활동까지 할 수 있는 트위치(Twitch)에 이르기까지,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위한 다양한 통로를 활용한다.

교회와 게임 분야 모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팟캐스트(podcast)도 있다. 팟캐스트 공동 진행자인 페티 목사와 자신의 아내가 건강한 게임 습관과 육아 그리고 사회 정의와 같은 주제에 대한 대화를 나누었다. 이들은 또한 올해 들어 사순절

현재 전자 게임은 그 크기와 범위 및 품질이 예술의 범주로 여겨질 만큼 향상되었다. 또한 사람들이 경연이나 스트리밍 환경을 이용해, 비디오 게임을 하면서 자신의 경력을 쌓을 수 있게 되었고, 이에 따라 여러 비디오 게임 커뮤니티가 등장하고 있다.

데이빗 페티 목사와 신앙과 게임을 접목한 크로스파이어(CrossFire: faith + gaming)는 이렇게 여러 커뮤니티와 게임을 하는 사람들의 연결이 거미줄처럼 사방으로 연결되어, 그 한계를 가능하기 어려울 지경에 이른 상황을 이용해, 비디오 게임을 하는 사람들을 사역에 참여시키기 위한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고 있다 (Online gamer ministry offers unique outreach).



목상 시리즈도 대화의 주제에 포함시켰다.

페티 목사는 온라인으로 신학적인 토론을 하거나, 기도를 요청하거나 또는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기 위해 서로를 위로하기도 하지만, 신앙이나 영성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고, 단지 게임이나 만화를 소재로 이야기할 때도 있다고 말했다. 이는 그가 의도한 것으로, 그는 토론의 내용보다 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믿기 때문이다.

“교회 개척 성공은 가장 매력적인 (교단) 로고나 정중을 휘어잡는 설교자를 통해서가 아니라, 그것은 공동의 목표를 가진

사람들을 중심으로, 실질적이고 진정성 있는 커뮤니티를 만들 수 있을 때 가능하다.”라고 그는 말했다.

“나는 한 번도 영향력 있는 소셜미디어의 인플루언서가 되고자 한 적이 없다. 나는 사람들이 그들의 믿음과 게임에 대한 사랑이라는 공통된 관심사를 중심으로 서로 연결되는 것을 보고 싶었을 뿐이다.”

라니 'Styxx' 화이트는 크로스파이어를 이렇게 설명했다.

“더 라스트 오브 어스(The Last of Us) 또는 매스 이펙트(Mass Effect)의 더 깊은 주제들에 대해 논할 수 있는 장소이자, 용서가 영혼에 얼마나 좋



은지를 토론하고, 지금과 같은 디지털 시대에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탐구할 수 있는 곳이다.”

“크로스파이어는 내가 괴짜 게이머이자 기독교인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게 해주었다.”라고 화이트는 말했다.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많은 공동체 내의 사역을 위한 물리적 공간의 사용이 불가능해지거나 접근이 어려워졌다. 그러나 이런 시기에 크로스파이어는 디지털 공간을 활용하여 사역을 확장하고, 사역이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의 공감을 얻어냈다.

페티 목사에게는 이미 많은 성공 사례가 있다.

한번은 한 청소년 부모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그들은 코로나 대응으로 인해, 자녀들이 친구를 사귀기 매우 힘들어했다고 말하며, 크로스파이어의 회원이 되어 자녀가 안전한 커뮤니티의 일부가 되고, 다른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었던 중요한 방법이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 다른 사례는 한 여성이 어느 월요일 밤에 불쑥 디스코드 커뮤니티에 들렀던 일이다. 그녀는 신앙을 포함해, 개인적인 삶의 문제로 고민하며 고통받고 있었다. 크로스파이어는 그녀와 이야기하며, 그녀를 도울 수 있는 커뮤니티가 있다는 사실과 그녀 삶의 여정에 함께할 수 있는 커뮤니티가 있음을 알려주었다.

페티 목사는 기독교인이면서

동시에 비디오 게임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놀라움은 사람들을 종종 만난다. 비디오 게임이 지난 수십 년 동안 엄청나게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존재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게임도 사랑하는 어린이와 성인을 둘러싼 게이머에 관한 낙인이 사라지기를 크로스파이어는 소망하고 있다.

크로스파이어의 일원인 브라이언 'R3d Letter' 휴즈는 “게이머들은 자신이 존재하는 곳에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교회의 능력을 손상시킨다는 커다란 인구통계학적 오해를 받고 있다. 크로스파이어는 자신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게임에 대한 사랑을 공유하는 사람들과 함께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온라인 장소 가운데 한군데다.”라고 말했다.

휴즈는 사람들이 다시 대면으로 되돌아간다고 할지라도, 온라인 사역이 계속해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는 크로스파이어가 “대우행 이전에 이미 실행 가능한 사역”이었고, 세상이 과거의 “노말 시대”로 회귀하더라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페티 목사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크로스파이어가 모든 분야에 연대, 사명, 헌신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는 훌륭한 커뮤니티가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이 사역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 우리 모두 이곳에서 안정을 취할 수 있다.”

건강 길라잡이



이영직
내과전문의

폐경화증

폐경화증은 일반인들에게는 조금 생소한 질환이다. 흡연에 의해서 주로 발생하는 폐기종이나 만성 기관지염은 잘 알려져 있고 그에 대한 치료도 널리 시행되고 있지만 폐경화증에 대해서는 정보가 부족하고 치료방법도 잘 정립되어 있지 않다.

-은퇴한 60대 후반의 정 모 씨는 2년 전부터 걸을 때마다 숨이 차오는 것을 느꼈다. 운동을 하지 않을 때면 숨이 찬 증상이 없지만 빨리 걸거나 언덕을 오를 때는 숨이 몹시 차서 자주 서서 쉬어야 했다. 또 몇 년 전부터 가끔 기침이 나곤 했는데 최근 들어 그 정도가 심해졌고 기침약을 먹어도 좋아지지 않았다. 그렇다고 가슴이 아프거나 속이 쓰린 증상은 없었다. 정 씨는 처음에는 심장에 이상이 있다고 생각하고 병원에서 심장 검사를 받았지만 심장은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판정을 받았다. 최근에는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서 거의 운동을 하지 못했고 기침도 더 심해져서 잠을 자기가 어려울 정도였다. 정 씨는 과거에 특별한 질병이 없었고 수술도 받은 적이 없어서 스스로 아주 건강하다고 생각했다. 가족력은 아버지가 젊어서 폐병으로 사망했다고 말했다. 정 씨는 젊어서 담배를 하루에 한 갑 이상씩 20년 이상 피웠지만 20년 전 미국에 이민 온 후에는 담배를 피우지 않았고 술도

전혀 마시지 않았다. 한국에서 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정 씨는 이민 온 후에는 봉제업을 하다가 2년 전에 그만두었다. 검 사상 혈압은 정상이었으나 맥박은 분당 95회로 빠른 편이었다. 혈중 산소 농도는 평상시 92%로 감소해 있었고 운동 후에는 85% 이하로 떨어졌다. 폐 청진

화증으로 진단되었다. 폐경화증(Pulmonary fibrosis)은 간질성 폐질환(Interstitial lung disease)의 일종으로 지속적인 폐의 염증 반응으로 인해서 폐가 굳어지는 병을 말한다. 폐경화증의 원인은 다양한 것으로 추측하지만 대부분은 원인을 알 수 없기 때

문에 특발성 폐섬유증이라고 부른다. 폐경화증에 걸리기 쉬운 위험 인자는 흡연습관, 50세 이상의 고령, 남성 등이다. 인종적으로는 백인이 흑인보다 더 흔하지만 흡연을 많이 하는 동양계에서도 흔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 약물이나 먼지 등 환경적

인 요소도 폐경화증의 발병과 관계가 있고 가족성 폐경화증에 대해서도 현재 연구되고 있다. 폐경화증의 발병 기전은 폐의 염증 활동이 증가해서 생긴다고 보기 때문에 염증을 억제해주는 스테로이드제나 면역억제제가 사용되지만 호전 없이 계속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염증 반응으로 폐가 굳어지는 병

상 양쪽 폐 아래쪽에서 나옴(부스럭하는 소리로 폐부종이나 간질성 폐 질환에서 들을 수 있다)이 들렸다. 가슴 엑스선 상에서 양쪽 폐의 간질성 변화가 현저하게 나타나 보였고 폐 기능 검사상 폐 기능의 저하가 보였다. 좀 더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미세 폐 단층 촬영을 한 결과 폐경

폐 이식은 공여자를 구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이식 후에 발생하는 부작용으로 인해서 시행되는 경우가 흔하지 않다. 다행히 현재 폐경화증 치료에 대한 실험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 앞으로 획기적인 치료법이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213-383-9388

Midwest University

Founded in 1986 www.midwest.edu

글로벌 인재 발굴과 양성을 실현하는

최고의 동문을 자랑하는 Midwest University School of Theology

신학, 목회학 - 학사, 석사, 박사 학위과정

목회자, 선교사, 기독교 지도자를 위한 리더십 전공 Ph.D. 학위

학점, 학위취득방법 Study Options

1. 미국 유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SEVIS-20 혹은 J-1 Visa
2. 직장과 사역지를 떠나지 않고 세계 어디서든 소집특강 및 Online 으로 학점취득 가능
3. 영어, 한국어 언어에 구애없이 학점취득 가능
4. 타 대학에서 받은 학점 최대한 인정하여 편입 가능

▶ VA-APPROVED (현역, 퇴역 미국 군인 및 가족 장학혜택)

자세한 사항은 web site 를 방문하거나 이메일 또는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전화 (636)327 - 4645, 이메일 usa@midwest.edu

Midwest University

Main Campus: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U.S.A
Tel : (636)327 - 4645 / Fax : (636)327 - 4715
E-mail : usa@midwest.edu

Washington DC: 5103 A Backlick Rd, #24, Annandale, VA 22003
Campus Tel : (571)730 - 4750 / Fax : (571)730 - 4751
E-mail : wde@midwest.edu